1. 서 론(Introduction to Setting)

1) 교회가 위치한 지역적 배경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부 교회는 21-70 Hazen St. East Elmhurst, New York 11370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아스토리아 헤이즌 지역, 동쪽으로는 라구아디아 공항, 남쪽으로는 그랜드 센트럴과 아스토리아 블러바드, 북쪽으로는 바어리만을 경계로 하고 있는 있다. 주로 한 가구나 두 가구가 사는 단독 주택지역으로 조용한 곳으로 뉴욕 5개 보로중 퀸즈 보로에 속해 있다. Rjker 농장은 19가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이 농장은 Abraham Riker가 네덜란드 마지막 관리인 Peter Stuyvesant 로부터 땅을 불하 받아 1655년에 세웠다 이 집들은 초기 이민자들이 사용했던 집으로 뉴욕시 안에 남아 있는 주택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75년 그 집을 사서 수년동안 수리를 하여 복원했던 Smiths 씨의 가족 묘지와 접해 있다.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9월 중순에는 여행할 수 있도록 집을 공개한다. 그리고 지금은 없지만 뉴욕시에서 금지하기 전까지는 현재 라구아디아 공항 근처에 북부 해안에 탈 수있는 놀이기구들이 있고 피크닉 지역과 무도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가끔 익살스러운 공연이 열렸던 그랜드 센트럴 고속도로를 건너서 있는 성 미가엘 공동묘지에는 유명한 작곡자 Scott Joplin이 잠들어 있다. [1].

---

[1] http://en.wikipedia.org/East Elmhurst,- New York 11370Astoria Heights is a district in the New York City borough of Queens. It is bounded by Hazen Street and Astoria to the West, La Guardia Airport to the East, Bowery Bay to the North, and Astoria Boulevard and the Grand Central Parkway to the South. It is mostly a quiet neighborhood of 1 and 2 family private homes.
The Riker-Lent Homestead is near the north end at 78-03 19th Road. Built around 1655 by Abraham Riker under a patent from Nieuw Nederland's last governor, Peter Stuyvesant, it is believed to be the oldest remaining dwelling in New York City still used as a residence.[1] There is an adjacent family cemetery. The Smiths, who bought the house in 1975, have been restoring it for many years. The annual public tour is given usually in mid-September by the

뉴욕시의 가장 큰 구치소가 헤이즌 도로 북쪽 끝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Rikers 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싱 관할 우체국 Zip Code 인 엘머스트 11370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섬은 1884년 롱 아일랜드 시로부터 뉴욕시에 인계된 이후는 브롱스에 속해 있다.

동부교회를 찾기 위해 디트마스 블러버드를 따라 아스토리아로 가다보면 갑자기 도로번호가 25 불럭을 건너 뛰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게 되는 데 그 이유는 롱 아이랜드 옛 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아스토리아 도로가 높은 언덕에 있으면서 복동쪽으로 기우려져 있기 때문이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퀸스 아스토리아에 속해 퀸즈보로는 뉴욕시 5개 보로중에 면적은 가장 넓고 인구는 두 번째로 많은 곳이다. [2]

퀸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첫 이주민은 1635년에 들어온 영국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이었다. 그래고 1664년 영국인들이 뉴욕을 점령나서 Long Island를 비롯한 자치구들은 Yorkshire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퀸즈의 경제는 관광, 산업, 그리고 교역의 기반위에 서 있다. 뉴욕은 3개의 공항을 지니고 있어서 비행기의 왕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John F, Kennedy 공항은 여행객들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으로 알려져 있고 Queens East River(동강)변에 La Guardia 공항은 보통 미국 북동부의 지역을 운행하면서 경제의 견인차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Queens 지역은

---

owners for the benefit of a local historical society. [2]Before Prohibition, there were dance halls, picnic areas and amusement park rides at North Beach, near what is now the airport.
Ragtime composer Scott Joplin is buried across the Grand Central Parkway at St. Michael's Cemetery which occasionally holds ragtime concerts.
The Rikers Island Bridge to New York City's main prison, Rikers Island, runs from the north end of Hazen Street. Technically, Rikers Island is in the Bronx since New York City took it over from Long Island City in 1884, after it had annexed the South Bronx but before it consolidated Queens. However, like Astoria Heights, Rikers Island gets its mail from the East Elmhurst (11370) station of the Flushing Post Office.
If you walk or drive from Astoria along Ditmars Boulevard, you will notice that the street numbers suddenly jump 25 or so blocks. This is because the streets in Astoria within the former city of Long Island City lean east of north whereas Astoria Heights streets, in the former town of Newtown, lean west of north.

[2] http://en.wikipedia.org/wiki/Queens,-Queens is the largest in area, the second-largest in population, and the easternmost of the Five Boroughs which form the City of New York. The Borough of Queens' boundaries are identical to those of the County of Queens (Queens County), a subdivision of the State of New York in the Northeastern United States.

미국의 영화 제작의 원산지로서도 유명하다, 많아 알려진 곳은 Astoria 의 Kaufman Studios 와 Long Island에 있는 Silvercup Studios이며 이곳에서는 유명한 TV 쇼들을 많이 제작한 바가 있다. [3]

Astoria 북서부는 전통적으로 초창기부터 유럽 그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온 지역으로 그리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 최근에는 맨허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점으로 맨허튼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랍계인들이 많이 들어 옴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외 루미니아인, 폴란드인, 슬로바키아인, 그리고 스페니쉬들이 많아 살고 있다. 특히 Jackson Heights, Corona, Elmhurst등에는 스페니쉬들과 동남아시아계 사람들의 상권과 공동체가 형성되어있다. 그리고 Queens에서 가정 큰 동네인 Flushing에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들의 고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역시 중국인들도 많이 몰려들어 그들의 경제권을 확대해 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그 외 스페니쉬, 이탈리아계,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4]

Astoria라는 이름은 본래 지주인 William Hallet가 그 부인 Elizabeth을위하여 1659년 그 땅을 사들인 후 Hallets Cove(초원)라고 블렀다. 그러나 William Hallet는 이 지역에 한 번도 발을 들여 놓은 적이 없는 John Jacob Astor에게 $2,000을 투자하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이름을 바꾸었다. 하지만 John Jacob Astor는 단지

---

[3] http://en.wikipedia.org/wiki/Queens-[edit] History
European colonization brought both Dutch and English settlers, as a part of the New Netherlands colony. First settlements occurred in 1635, with colonization at Maspeth in 1642,[8] and Vlissingen (now Flushing) in 1643.[9] Other early settlements included Newtown (now Elmhurst) and Jamaica. However, these towns were mostly inhabited by English settlers from New England via eastern Long Island (Suffolk County) subject to Dutch law. After the capture of the colony by the English and its renaming as New York in 1664, the area (and all of Long Island) became known as Yorkshire

[4] Ibid.-Astoria, in the northwest, is traditionally home to one of the largest Greek populations outside of Greece, and is also home to a growing population of Arabs as well as young professionals from Manhattan.Maspeth and Ridgewood are home to many European immigrants, including large Romanian, Polish, and other Slavic populations. Ridgewood also has a large Hispanic population.
Jackson Heights, Elmhurst, and Corona make up an enormous conglomeration of HispanicAsian American and South Asian communities. Flushing, one of the largest neighborhoods in Queens has a large Asian community. The community consists of Koreans, Chinese as well as Hispanics, Italians and Greeks.

$500만 투자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은 그대로 있었다. 이 마을의 이름을 놓고 벌인 싸움은 결국 Astor의 후원자들과 부자였던 그의 친구들이 도움으로 Astor의 승리로 끝이 났다. Astor는 그의 명예를 위해 Long Island 마을이 잘 보이는 강 맞은편 맨하튼 York Avenue 근처 지금의 East 87^{th}Street에 별장을 건축하고 이 이름을 Astoria라 하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초반, 풍족한 뉴요커들은 12^{th}와 14^{th}Streets를 중심으로 큰 거주지를 건설했다(지금의 Old Astoria). 1839년 모피상인 Steven Halsey에게 발견된 Hallet's Cove는 맨허튼을 풍성하게 해주는 양들의 목초지였다. 19세기 후반에 경제와 상업의 급속한 성장은 독일의 이주민, 주로 가구 및 캐비닛 제작자의 이주를 이끌었고, 그중 하나인 Henry Steinway는 1853년 Steinway Piano Company를 설립한 Steinway가의 가장이었다. 그는 streetcar line 뿐만 아니라 제재소와 양조장을 건축했다. 그리고 Steinway는 그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마을과 영어뿐만 아니라 독일어로 운영되는 학교를 설립했다.

1870년, Astoria 와 Steinway를 포함한 몇몇 다른 주변 마을들은 Long Island City로 합병되었다. Long Island City는 1898년 New York City로 병합되었다. 그리고 Astoria 와 Steinway에 농장들은 증가하는 이주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다.[5]

---

5 http://en.wikipedia.org -Queens,Astoria.Originally, Astoria was known as Hallet's Cove, after its original landowner William Hallet, who settled there in 1659 with his wife Elizabeth (Fones). The place was renamed after John Jacob Astor, who never set foot in the neighborhood, in order to persuade him to invest $2,000 in the neighborhood. He only invested $500, but the name stayed. A bitter battle over naming the village was finally won by supporters and friends of Astor who had become the wealthiest man in America by 1840 with a net worth of over $40 million. Astor did live in a place called "Astoria" (his summer home), built in Manhattan on what is now East 87th Street near York Avenue, from which he could see across the river the new Long Island village named in his honor....Beginning in the early 19th century, affluent New Yorkers constructed large residences around 12th and 14th streets, an area that later became known as Astoria Village (now Old Astoria). Hallet's Cove, founded in 1839 by fur merchant Steven Halsey, was a noted recreational destination and resort for Manhattan's wealthy.[1][2]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1800s, economic and commercial growth brought about increased immigration from German settlers, mostly furniture and cabinet makers. One such settler was Henry Steinway, patriarch of the Steinway family who founded the Steinway Piano Company in 1853. Afterwards, the Steinways built a sawmill and foundry, as well as a streetcar line. The family

2005-2007년 American Community Surey Estimates에 의하면 이 지역의 인종 구성은 White가 45.8%, Black or African American가 20.3%, American Indian가 0.8%, Asian은 21.7%, 나머지는 Hispanic과 Latino 들이다.[6]

한인들의 뉴욕지역의 이민은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45-1965년까지의 유학생의 수는 5000명으로 나타나 있다.[7] 그러나 본격적인 이민은 뉴욕시 의료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0년 초부터 시작된 간호사 취업이민의 문이 열린시기로 보고있다.

2)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

① 역사적 배경

뉴욕동부교회는 1975년 11월 30일(주일)에 롱 아일랜드에 있는 박중기 장로 가정에서 모여 첫 예배를 드렸다. 그후 9명의 성도들이 박희소 목사를 청빙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1976년 3월 28일(주일)에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구성원들은 간호사 취업으로 이민 온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 원로 목사의 가정 뿐 아니라 원로 장

---

eventually established Steinway Village for their workers, a community that provided school instruction in German as well as English.[3]
 In1870, Astoria and several other surrounding villages, including Steinway, were incorporated into Long Island City. Long Island City remained an independent municipality until it was incorporated into New York City in 1898. The area's farms were turned into housing tracts and street grids to accommodate the growing number of residents.[1]

[6] http://en.wikipedia.org-Queens,According to the 2005-2007 American Community Survey Estimates, the borough's population was 45.8% White (31.0% non-Hispanic White alone), 20.3% Black or African American (18.4% non-Hispanic Black or African American alone), 0.8%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21.7% Asian, 0.1% Native Hawaiian and Other Pacific slander, 13.4% from some other race and 1.9% from two or more races. 26.2% of the total population were Hispanic or Latino of any race

[7] 미주한인이민100주년대뉴욕 기념사업회 편, *대뉴욕한인 100년사* (서울: 쿰란출판사, 2003), 59

로의 가정들도 이때 이민 온 간호사들의 가족들이다. 교회는 상장을 거듭하면서 1982년 우드사이드 지역으로 한번 이사를 하고 또 1985년 현 위치로 이동을 하기 전까지 약 300 여명 성도들이 참석하는 공동체로 당시에 뉴욕지역에서 몇 안되는 교회중의 하나로 자라났다. 그러나 그후 약 20년 동안은 정체와 교인 감소의 내리막길을 달려오게 되었다.[8]

본교회 1대 목사인 박희소 목사는 교단 총회장, 그리고 뉴욕목사회 회장, 뉴욕교회 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하고 은퇴후 지금은 미주기독교방송 사장으로 일하는등 계속해서 왕성한 교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뉴욕지역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목사이며 교회이다. 그후 3년정도 사역한 2대 황영태목사를 거쳐 2008년도 3월 부터는 3대 정봉기목사가 담임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② 현재 상황

현재 교인수는 장년이 50여명, 교회학교에 25명 정도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일예배는 오전 10:30, 교회학교는 12:00에, 그리고 수요예배는 저녁 8:30, 제자훈련은 주일 오후2:00~4:00, 주일학교 성경공부 주일 오전10:30, 주일 목장모임은 주일 12시에 모이고 있다. 교인들의 연령층은 주로 60-70대가 70%, 30-50대가 30%이고 장로가 4명, 안수집사가 4명, 권사가 11명, 서리집사가 20명, 원로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1명이 섬기고 있는 교회이다.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주변에는 거의 살지 않고 플러싱, 맨허튼, 스태튼 아일랜드등에서 살고 있다. 재정적으로는 자립을 유지해 가고 있으며 교회 예배당은 자체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는 점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

[8] 강지훈장로의 증언(1935년생) - 본 교회 창립교인중 한사람으로서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3). 문제 제기

①. 교세약화의 원인

ㄱ. 가장 큰 원인은 보이지 않는 목회자와 교인, 교인 상호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고전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게 했다.

ㄴ. 두 번째로는 교육의 부재에 있다. 30여년동안 아무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다. 교육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켜 일군을 만들어 내고 내일의 주인공들은 젊은이, 학생들을 키워내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ㄷ. 셋째로는 장년 중심의 목회를 하므로 젊은이들의 장이 없어져 버렸다. 현재 직분자들의 가정에서 본 교회 출석하는 자녀들은 없다. 서리집사의 가정에서는 세 가정 자녀만 본 교회 출석하는 형편이다.

ㄹ. 넷째로는 교회의 위치이다. 본 교회는 자마이카에서 시작하여 6년을 보내고 우드 사이드로 이사해서 3년 정도 지내는 동안에 300명까지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러나 24년 전 사정에 의해 아스토리아 지역으로 이사해 오면서 교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은 한인들이 매우 드물게 살고 있다.

ㅁ. 다섯째로 교회 지도자의 교회밖 활동이 너무 많았던 점이다. 교회내 활동은 주일 예배와 삼일 기도회에 설교하는 것 외에는 아무 활동이 없었다, 그 흔한 금요기도회 또는 성경공부, 양육 프로그램 하나가 없었다.
그 외에도 시설의 낙후를 들수 있다. 현재 예배당은 5년전에 30여평의 창고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는 있으나 건축한지 몇십년되어 시설이 낙후되어 있다.

②. 대안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 것인가? 세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돌봄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들의 상처 난 마음을 치료해 주어야 한다. 둘째는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향상 시켜 주어야 한다. 셋째로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도들의 신앙의 질을 높여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성도들이 대를 이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쉐마교육을 연구하여 본 교회에 적용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③. 이 시스템에는 어떤 교육의 내용을 담을 것인가?

ㄱ. 보다 철저한 성서적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21세기의 사회는 기독교의 순수성을 흐려놓는 방향에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신앙에로의 환원만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교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사회현상에의 적응보다는 오히려 보다 철저히 교회의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시대를 거슬러 빛을 발하는 입장에 설 때 그 진가를 드러내며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교육을 통해 성서적 사고와 가치관을 함양하는 교육에로 그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9]

ㄴ. 신자의 제사장직이 보다 철저히 실현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Snyder는 21세기 교회의 변화 방향성에 있어서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사역자

---

[9] Snyder, Howard A, 박이경.김기찬 역, *21세기 교회의 전망*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101

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공동체"로 제시하면서 신자는 제사장 노릇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 예견한다.[10] 앞으로의 교회가 교회됨을 사회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신자의 제사장직이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Malphurs도 미래교회의 모습들 중 중요한 한 측면이 평신도의 기동화 문제임을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불과 20%의 교인들이 80%의 사역을 감당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와 관계되어 Larry Richards와 그의 동료들이 5,000명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교회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 믿는 것을 기록하라는 내용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거의 100%의 목회자들이 평신도 기동화 문제를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로 손꼽은 사실을 소개한다.[11] 미래의 교회가 성장 또는 생존하기 위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또한 그러한 사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라

ㄷ. 교회의 순수성이 회복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신약성서에 나타난 교회는 전통적으로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주장해 왔다. 이는 그 근본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정신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회가 세속적인 것에 의해 이용당하거나 세속적인 것과 타협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지키려는 정신이라는 말이다. 역사적으로 교회와 세속 정권은 숨박꼭질하듯 꼬리를 물고 그 우위성을 놓고 힘 겨루기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정치를 압도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세속 정권이 철저히 교회를 유린하고 교회를 이용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함으로써 평

---

[10] Ibid.,102.

[11] Malphurs, Aubrey, Pouring NewWine into Old Wineski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167.

온을 유지한 것 같았지만 교회가 급속히 부패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에 초연하려는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수 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의 잔을 마셨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래 사회에서의 이러한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ㄹ. 진정한 교회를 경험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그분의 마음 속에 품으신 "비밀"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이다(엡 3:9-10).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께서 목적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예수께서는 친히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마 16:18). 세속화의 어두움이 보다 짙어지는 세상에서 교회의 진정한 보습의 회복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21세기에서의 교회 교육은 코이노니아를 경험케 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의 강조점이 주어져야 한다.

Malphurs는 미래교회의 모습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어떤 시대보다도 미래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과 교회를 향한 그분의 비전에 보다 철저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12] 이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근본 아이덴터티를 더욱 분명히 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더욱 철저히 실현되어야 하며, 여기에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경험을 요청하게 된다.

ㅁ. 교육과 목회의 이원화 현상이 지양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오늘날의 신학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은 교육과 신학의 이원

[12] Ibid., 161.

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장로교신학대학의 고용수 교수는 다음과 같이 그의 문제인식을 피력한다:

> 교회라는 오늘의 교육구조를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목회와 교육을 구분하는 이분화된 행정체제를 들 수 있습니다....우리 교회공동체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이 순례자의 위치에서 하늘나라의 문화를 그 안에서 경험하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생활양식을 형성하고...그들은 분명히 교육받아야 할 대상인데, 현재 교회의 교육구조에서 보면 목회자가 성인을 중심으로해서 설교에 초점을 맞춘 예배형태의 구조와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구조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13]

교육과 목회의 이분론적 구조는 교회가 통전적으로 교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목회자의 설교나 주일학교 또는 교회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교육이나 그 근본 목적에 있어서 다를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자들은 설교와 교육을 복음선포(케리그마)와 그리스도인의 교훈(디다케)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신약성서에서의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사도들의 경우도 역시 이 양자의 구분을 뚜렷이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설교와 교육뿐 아니라 교회의 모든 행정적 조치나 각종 프로그램들 중 어느 것 하나 교육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교회가 재정을 사용하는 모습에서 교인들은 물질을 사용하는 가치를 배우게 되며, 교회의 각양 프로그램 진행의 수준과 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수준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과 목회의 이분화 현상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향에서 목회철학의 본질적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3] 고용수, *교육목회와교회갱신* (서울: 요단출판사, 1996), 101-102.

2. 성서와 쉐마

쉐마는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녹아져 있는 히브리 종교와 문화의 전승이다. 하지만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이와같은 전통을 외면한 채 새로운 것만이 최고로 생각하고 늘 새로운 것만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 로마의 역사는 사라졌으나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건재하다. 이스라엘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았던 것은 바로 이 '쉐마'의 전승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B.C 587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 A.D 1948년까지 국가가 없이 '디아스포라'의 상태로 지내던 그들이 국가를 재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 '쉐마'의 전승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의 인식에는 히브리 유산과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며, 기독교와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도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현대야말로 교회의 역사의 기원이며, 히브리 사고의 근원이 되는 구약성서에 나타나 있는 '쉐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쉐마란 무엇인가?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쉐마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1). 유대인들의 신앙의 실천 강령인 신명기 6장4-9절에 나타난 '쉐마'(당시의 상황과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황속에서 '쉐마'의 역할)

쉐마는 원래 신명기6장 4절만을 말한다. 그러나 후대에 와서 6:5-9절까지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제2부분(신11:13-21)과 제3부분(민수기 15:37-41)도 포함되었다[14]본 논문에서는 신명기 6장4-9절[15]에 국한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14]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교문사, 1980), 891.
쉐마의 첫부분은 첫째, 야훼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항상 그가 명령한 계명을 상고하며, 둘째,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밖으로 표현하라는 이중적 명령을 갖고 있다, 첨가된 신11:13-21은 하나님을 사랑

신6: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

"쉐마" 란 신6장4절의 " 들으라 이스라엘(שְׁמַע יִשְׂרָאֵל) " 이라는 명령형 동사에서 기원되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기도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매일 기도할 때에 읽는 기도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 두 번씩 암송하였다. 쉐마는 유대인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영적 교육이다. 어머니의 무릎 밑에서 "쉐마" 란 단어를 배우며 노인되어 임종시에도 마지막으로 "쉐마"를 외운다. 이스라엘은 쉐마로 시작해서 쉐마로 끝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쉐마와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뜻한다. 이처럼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식구조와 삶 전 영역에 뿌리박힌 신앙고백이요,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나타내는 고백이다.[16]쉐마는 하나님 유일신에 대한 확언이며 동시에 다른 신에 대한 부정이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쉐마는 이스라엘 초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으며 예배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진실한 영적 예배임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 들으라(שְׁמַע) "에는 "순종하다(Obey)" 라는 뜻도 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쉐마의 내용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계승시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라는 명령을 이행했을때 받을 축복과 불복종했을때의 징벌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민수기15:37-41에는 율법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술을 경문의 첫 번째 두(頭)부분에 달도록 하고 있으며 십계명에 대한 선언에서 끌어낸 서술로 전체를 마무리 짓고 있다.

[15]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297.
(4)שְׁמַע יִשְׂרָאֵל יְהוָה אֱלֹהֵינוּ יְהוָה אֶחָד (5)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6)וְהָיוּ הַדְּבָרִים הָאֵלֶּה אֲשֶׁר אָנֹכִי מְצַוְּךָ הַיּוֹם עַל־לְבָבֶךָ (7)וְשִׁנַּנְתָּם לְבָנֶיךָ וְדִבַּרְתָּ בָּם בְּשִׁבְתְּךָ בְּבֵיתֶךָ וּבְלֶכְתְּךָ בַדֶּרֶךְ וּבְשָׁכְבְּךָ וּבְקוּמֶךָ (8)וּקְשַׁרְתָּם לְאוֹת עַל־יָדֶךָ וְהָיוּ לְטֹטָפֹת בֵּין עֵינֶיךָ (9)וּכְתַבְתָּם עַל־מְזֻזוֹת בֵּיתֶךָ וּבִשְׁעָרֶיךָ ס

[16] F. A, Rothschild, *The Shema* (New York: The Burning Bush Press, 1924), 8.

"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 이 구절은 히브리어로 네 마디이다. "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하드(dj;a, hw:hy_ Wnyhel|a> hw:hy_) " 이 네 마디는 " 야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야훼 한 분이시다 " 라고 옮겨 진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다. 즉,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유일신에 대한 선언인 동시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는 의미이다[17]. 본 구절은 야훼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당부하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4절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에하드(אֶחָד)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이다. Gordon 같은 학자는 '에하드' 자체를 하나님의 이름이나 호칭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18]에하드는 다수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단일성(Oneness)을 의미한다. 바알이나 마르둑처럼 만신전(萬神殿)의 주신(主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결합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준다. 고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

신6장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וְאָהַבְתָּ אֵת יְהוָה אֱלֹהֶיךָ בְּכָל־לְבָבְךָ וּבְכָל־נַפְשְׁךָ וּבְכָל־מְאֹדֶךָ)"

" 마음을 다하고 " 의 " 다하고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בְּכָל"의 의미는 ' in all ' 로써 ' 전적(全的)으로 ' 라는 뜻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이 에하드처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부분이 갈라지지 않게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

[17] 왕대일, *21세기 설교가이드 제6권* (서울: 성지연구사, 1997), 202.

[18] C. H, Gordon, *His Name is 'One'* (Journal of Eastern Studiespids, 1970), 198.

마음은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잡고 있는 곳을 말한다. 곧 '인격'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인 것이 없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다.[19]

" 성품을 다하고 " '성품'으로 번역된 ' נַפְשְׁךָ ' 는 '숨을 쉬다(breath)'를 의미한다. 그래서 ' נַפְשְׁךָ ' 는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 단어의 어의적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된 문맥 속에서 적절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다. 호세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보고 있는데 부자관계에서 자식의 부모 사랑이란 순종과 존경심일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야훼 사랑은 의무이기 보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기서 마음은 정신과 의지를 망라하여, 성품은 생명과 활력의 원천을 뜻하고, 힘은 넘치는 기운을 말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하나님 사랑은 '온 몸'으로 정성을 기울여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20]

신명기 6장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וְהָיוּ הַדְּבָרִים הָאֵלֶּה אֲשֶׁר אָנֹכִי מְצַוְּךָ הַיּוֹם עַל־לְבָבֶךָ) "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을 전달할 책임과 그것을 마음에 새길 책임이 있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질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한다. 확실하게 내면화되어야 한

[19] 제자원, *옥스프드 원어성경대전 신명기* (서울: 성서교재주식회사, 1999), 405.

[20] 장일선,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 기념주석 신명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176.

다. 이러한 명령에 대한 순종은 형식적인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이해로부터 나오는 반응의 문제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법이 보여주는 삶의 길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듯(시1:2), 마음에 새겨진 법을 묵상할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동시에 그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עַל־לְבָבֶךָ)" "새기고(עַל־לְבָבֶךָ) "의 뜻은 " 마음에 두다, 마음위에 있도록 하다 "의 뜻이다. 계명을 기억할 뿐 아니라 마음에 품어야 한다. 말씀을 기억속에 뿐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박아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쉐마"를 간직하라는 주문이다.[21]

한글 개역 성경의 "새기고"란 번역은 일회적 행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어는 ' ~이다' 란 뜻의 상태를 나타내는 '하야(הָיָה)' 동사로서 말씀이 마음 위에 있는 상태가 항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신명기 6장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וְשִׁנַּנְתָּם לְבָנֶיךָ וְדִבַּרְתָּ בָּם בְּשִׁבְתְּךָ בְּבֵיתֶךָ וּבְלֶכְתְּךָ בַדֶּרֶךְ וּבְשָׁכְבְּךָ וּבְקוּמֶךָ) "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는 문장 기교 가운데 하나인 평행 대구법[22]을 사용하고 있다. 대구법이란 어조가 비슷한 문구를 한 쌍으로 제시하여 운율의 생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느낌 가운데 기본 주제를 강조하는 세계 공통의 수사법 중의 하나이다.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1] 왕대일, *다시듣는 토라* (서울: 도서출판 한국성서학, 1998), 205.

[22] 제자원, 407-408.

A.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וְשִׁנַּנְתָּם לְבָנֶיךָ)
A'.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וְדִבַּרְתָּ בָּם)

B.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בְּשִׁבְתְּךָ בְּבֵיתֶךָ)
B'. 길에 행할 때에든지(וּבְלֶכְתְּךָ בַדֶּרֶךְ)

C. 누웠을 때에든지(וּבְשָׁכְבְּךָ)
C'. 일어날 때에든지(וּבְקוּמֶךָ)

이러한 동의적 평행 대구법의 요소가 원어 성경으로 볼 때에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한글 개역 성경은 A' 를 본절 마지막에 배치하여 본절 초두에 나오는 A와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A' 가 A 바로 뒤이어 나옴으로 서로 평행되는 대구 구조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쌍의 평행 문구는 단어의 수까지도 각기 일치하며 발음에 있어서도 유사한 소리가 나도록 함으로써 원문을 읽을 때는 매우 경쾌한 리듬감을 느끼게 된다.

신명기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וּקְשַׁרְתָּם לְאוֹת עַל־יָדֶךָ וְהָיוּ לְטֹטָפֹת בֵּין עֵינֶיךָ)"

"손목"은 '행동하거나 일하는 것'을 상징한다. "손목에 매라" 는 것은 '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로 일일이 재어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말한다.

"미간"은 '이마, 머리'를 상징한다. 머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곳이며, 인간의 사상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붙이라는 것은 신본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하

라는 것이다. 사람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계명을 쓴 표식을 붙여 두고 메순간 확인토록 함으로써 계명 준수가 생활의 중심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는 테플린과 9절 말씀을 근거하여 문설주에 기록하는 메주자(Mezuzah)가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8절 "기호"는 구약에 79번이 사용되고 그 중에 39번은 모세오경에 사용되었다[23]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는 명령은 신명기6장 5~7절의 내용과 대조적이다.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순종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면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외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고대사회의 널리 알려진 종교적 관습중 하나는 이마에 특별한 표시가 생겨진 띠를 부착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항상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이 몸에 쉐마의 내용을 써 붙이는 것은 그들의 신앙고백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라한 관습은 신약시대에는 '테필린'으로 발전되었디. 이 테필린은 기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이다.

신명기6장9절,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וּכְתַבְתָּם עַל־מְזוּזֹת בֵּיתֶךָ וּבִשְׁעָרֶיךָ ס)"

'문설주'로 번역된 '메주조트'의 단수형 '메주자(מְזוּזֹת)'는 양피지로 된 성구를 기록한 문서를 담는 조그마한 상자를 일컫는 이름이었다. '메주조트'는 실제로 개인의 집 문설주를 가리킨다. 이는 출애굽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면한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다.[24]하지만 후대에 와서는 유대인 집의 문설

[23] Paul A. Kruger, *Oth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I (Grand Rapids: Eerdmans, 1997), 331.

[24] 출애굽기 12장 21-30절.

주에 부착하는 조그만 양피지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양피지에 쉐마의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그것을 동그랗게 말아서 문설주에 부착시켰다. 후에는 이 양피지를 넣는 통을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부터 '메주자'는 쉐마 내용을 담고 있는 통 전체를 지칭하였다.

이 '메주자'를 부착하는 위치는 들어가는 사람이 보았을 때 오른쪽 편이 되는 문설주이다. 이는 이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한 개인,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동동체에게 하나님의 구원행위와 계약 명령을 회상시키는 '기호'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교회 공동체와 쉐마(Theological Field)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델로 한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쉐마교육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다.[25] 교회는 '부름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고 모인 자들의 모임,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26]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의 주도하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한 몸 공동체로 나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모으고 무엇이 모여 지느냐가 중요하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교회는 모임, 즉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동체는 그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것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는 먼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27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 됨을 헤치는 다툼이 일어났다.[28]

동부교회 역시 초대교회 불화와 갈등의 문제가 20여년 전부터 있어왔다. 주요 갈등의 요인은 신구 성도간의 대화적 갈등과 미성숙한 관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 지식 있는 자와 못가진 자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등이 원인

---

[25] 마태복음 16:16-1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26] Hans Kung, 정지련 역, *교회*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109.

[27] Ibid., 110.

[28] 고전3:3-4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이 되어 다툼이 계속되어 서로를 증오하게 되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됨을 지켜 가는 것처럼 하나 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몸 된 교회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33년의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이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몸된 교회는 이제 사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주고 섬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해야 한다. 교회는 성도와 이웃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는 곳이어야 한다. 그동안 본 동부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이러한 교회를 이룩하는데 미흡하였다. 즉, 성령이 각자에게 나누어 준 은사를 활용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는 것을 중심으로 한 교회 행정과 운영이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도들의 유기체적 공동체로써 상호 충족, 충분을 이루는 공동체여야 한다. 동부교회는 그동안 상호 돌봄 목회가 부족하였다. 사회적 돌봄은 어느 정도 잘 되어왔으나 영적, 교육적 돌봄은 부족하였다. 상호 돌봄 목회를 실행함으로써 교회의 한몸 됨을 나타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범적 사역, 돌봄의 사역을 이 땅의 교회 공동체에 실현하기 위해 쉐마교육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돌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전하기를 "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1:23)" 하셨다. 예수는 근본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심으로 돌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말씀한 것처럼 " 너희와 함께"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18회 이상 언급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와 함께"하는 사역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고통과 아

픔,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우리고 돌보는 주님의 "돌봄의 사역(Pastoral Care)" 이다[29] 그러므로 예수의 돌보심을 체험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받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 소망과 기쁨을 신음하고 있는 다른 성도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예수는 사랑하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그 가족들과 친구들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요11:35). 또한 십자가에 돌아 가시기전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탁하셨고(요19:26-27), 베드로에게 분노를 표출하셨으며(막7:33), 잔치집에서 즐거움을 나타내셨다(눅7:33-34). 그의 공생애 동안에 감정적으로 희노애락을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고(마4:1-11),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셨으며(눅8:23), 배 고픔을 느끼셨고((마21:18), 채찍에 맞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고(요19:1), 마침내 죽음까지 경험하셨다(막15:37). 실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셨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하여 주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돌봄으로 그들을 세워 주었다.[30]

예수는 친히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하여 "돌봄의 사역"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5:12)",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2:6)"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실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요15:9)"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셨다. 사도 바울 역시 "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 받는 자 되라(고전11:1)"고 권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르침대로 행해야 한다. 우리는 쉐마 교육을 통하여 이 내용을 인지시키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교회 공동체는 돌봄의 공등체이다.[31]

---

[29] 김경수, *돌봄* (서울: 서로 사랑, 1994), 16.

[30] Sideny A. Weston, 임종원 역, *예수의 발견* (서울: 기독지혜사, 1988), 39.

[31] Donald Capps, 문희경 역, *인간 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2001), 105.

4. 사회 공동체와 쉐마 (Social Justice Component)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델로 한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쉐마교육을 사용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가?

교회는 여러 집단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만나 이루어진 공동체이다. 교회 공동체는 이런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 지기에 필수적으로 상로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상해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게 될 때에 그 동동체는 여러 가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마침내 깨어지는 것이다. 고로 여기에서 돌봄의 사역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상처입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지속적으로 일어 남으로써 그 공동체는 치료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게 된다.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통하여 "만남"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많은 공동체들이 "만남"이라는 성경적 진리위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이해의 부족과 지속적인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의 부족으로 관계의 연속성이 깨어지고 있다.

뉴욕 동부교회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다. 성도들이 하나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다른 교회 구성원들을 이해 하고자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뿐 아니라 교회에서 보내는 3~4시간 동안 배려는 찾아 보기 힘들다. 오히려 자신들과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더나아가 다름 사람을 자신들의 이야기 거리 재료로 사용하고 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이다. " 내 안에 가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같아서 과실을 맺을 수 없을 뿐 아니

라 곧 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은 아무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고로 성도들을 쉐마교육을 통하여 상처입은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예수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바로 돌봄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이 돌봄의 사역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벧전5:3)"는 말씀처럼 명령하는 자세가 아닌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사역자[32]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치 어린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열달을 양육받고 나오듯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 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3]이렇게 될 때에 상처입은 성도들의 참된 자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로써 교회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34]

---

[32] 고용수, *만남의 기독교 교육사상*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 출판부, 1999), 75-76.

[33] 김경수, 264.

[34] 고용수, 99.

5. 기독교 교육과 쉐마 (Christian Educational Component)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쉐마의 의의)

쉐마교육의 강조는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초점 형성에 중요한 빛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쉐마를 토대로 오늘의 기독교 교육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평가 적용하여 기독교 교육의 구조에 대한 본질적 파악과 미래의 기독교 교육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과 정립을 위한 시도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1).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주제로서의 의의

쉐마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인 중심 주제이며, 기독교 교육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명해 주는 중요한 초점을 살 필 수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교육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었다.[35]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당한 교육 목적을 한미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찾는 교육"이라고 함이 타당하다. 그들은 매일의 삶속에서 필수적인 질문으로 "나로 하여금 여기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36]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요, 교사시며,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지식과 그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선조가 애굽으로부터 구출 받았던 사건과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되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신의 의지(Will of God)를 계속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핵심이었고, 삶과 역사와 세계의 주가 되시는 그 신의 의지를 찾는 몸부림이 그들의 교육활동의 핵심이 되었다.[37]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명령인줄로 알아 순종해 왔으

---

[35] 길현주, 34.

[36] 정웅섭, 15.

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삶의 방향도 정하였다.

쉐마의 교육은 인간의 편에 출발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행사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승시켰다. 신명기의 교육철학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잊지 말고, 따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이 하나님을 자자손손이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 저자가 말하는 "교육의 신학"이라 할 수 있다.[38]

오늘날의 신학과 기독교 교육의 문제도 이 초점이 흐리지 않을 때 그 본래적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가르치려느냐하는 교육 방법의 문제, 그 communication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냐 할 때 역시 기독교 교육은 그 방법에 관한 문제가 제 1차적인 것이 될 수 없다. 누구에 대한 교육이냐, 어떤 신을 가르치려 하느냐하는 신관(神觀)의 문제가 기본적이어야 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39]

쉐마 종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며,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신학적 중심 주제에 대한 강한 근거를 제시해 주는 "하나님 중심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육 형태를 가지는데,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교육의 특징이기도 하다.

첫째, 율법을 통한 교육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선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스라엘의 삶의 원리였다. 이 율법은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과 불완전함을 알게 하고 구속자이신 메시야를 기다리게 하는 역사이다.

이러한 율법을 통한 교육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지혜 교육이 있다. 즉 하나님이 지혜이시며 그 지혜를 통해 가르치시고, 그 지혜를 인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지혜란

---

[37] 은준관, 86.

[38] 길현주, 35.

[39] 김정준, 265.

세상을 협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반영이다.[40]

이 율법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계획에 의하여 주어진 것으로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며,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인 것과 불완전함에 관하여 알려준다. 그러므로 이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성의 현현(顯現)은 인간의 상실된 신분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식케 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의인이 되게 한다. (갈3:19-22). 이와같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은 유대교육의 핵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바로 보이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으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육을 하셨다.[41]

둘째, 시험을 통한 교육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교육시키고 자기의 뜻을 계시하신다.[42]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교육적 계획을 세우셨으나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다.[43] 그 후에도 하나님은 역사 세계를 통하여 여러 번의 시험을 하셨으며, 또한 율법을 주시고 율법에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교육하셨다. 이러한 시험을 통한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모든 국면에 임할 때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의 길로서 완전한 한 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44]

셋째는, 징계를 통한 교육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에 실패하였을 때는 가차

---

[40] 정정숙, 281-282.

[41] 길현주,36.

[42] C. B. Eavey, 25-26.

[43] 정정숙, 283.

[44] 길현주, 37.

없는 징계를 가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는데 징계는 하나님의 시험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45]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교육 방법을 실시하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은 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교육은 이스라엘 부모에게 전승되어 자녀들을 징계함으로 바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46]

2). 기독교 교육의 기본 성격으로서의 의의

쉐마의 교육적 주장은 "교육이 신앙의 전승"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7] 이스라엘은 그들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육을 취급했기 때문에 교육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혹은 일정한 장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특히 쉐마의 교육적 주장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의 모든 구체적인 국면에 처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삶 그 자체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영원한 학생으로 인식하였고, 인간의 생애를 교육의 과정(Process)으로 파악하였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평생 교육의 명령임과 동시에 생활 교육의 명령이기도 하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언제나 교육하라는 것이다.[48]

---

45 C.B. Eavey, 22-25.

46 Edmond Jacob, 288-289.

47 김득룡, 176.

48 강용원, 116.

이스라엘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에 새긴 후 그것을 다시 자녀에게 가르쳐야 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해진 모든 의식들도 계속 전승해야 하며, 이것을 또한 실생활에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들 생활 전체는 계명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신앙과 생활은 반드시 새로 일어나는 세대에 전해져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더욱 확대시켜 새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계약에서 오는 특권을 누리게 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였다.[49]

이러한 쉐마 교육의 특징적인 면인 "신앙의 전승으로서의 교육"은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점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 역시 "신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거기에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가 작용됨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닮음에로 나아가는 동력은 근본적으로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고, 형성시키는 일, 믿음을 가꾸어 나아가는 일은 기독교 교육의 핵심적인 과업이며,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관심이 된다고 하겠다.[50]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의 기본 성격에 관한 교육적 통찰은 오늘의 기독교 교육 역시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 전(全) 생애를 포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롬12:1, 시24:1, 고전10:31) 그리스도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성화(聖化)의 과정을 밟아 나간다.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사람이 관계하는 모든 사물과 인간, 그리고 그가 접근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를 말한다.[51]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전 생애를 포괄하며

---

[49] 김득룡, 176.

[50] 강용원, 46.

[51] Norman E. Harper, 118.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모든 영역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Jan Waterink 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교육은 생활 전반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초대하는 일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일부분이나 피조물의 일부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행활의 전체나 피조물 전체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생활 전체와 생의 모든 관계를 포괄하고 있다.[52]” 이렇게 볼 때 기독교 교육의 과제는 “삶의 의미”그리고 “삶의 형성 전체”에 대한 물음도 포괄하고 있다고 하겠다.[53] 바로 “신앙”이 교육의 근간이 되며,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바의 절정이요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 교육의 근본토대로서의 의의

쉐마 본문 중 신명기 6장 4절~9절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육적 통찰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신6:6~9) 는 구절 속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그들의 교육의 최고의 권위로 삼았으며, 교육원리의 근원이며, 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이 교회보다 일반 교육과 더 긴밀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고, 역사적 기독교회와의 관련성을 무시하며, 성경의 계시만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계시를 동등하게 생각함으로 이 결과 교회와 교육의 관계가 소홀히 되고 교회가 본질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교회에서 찾으려는 진지한 관심을 잃게 된 기독교 교육의 현대적 상황에 중요한 시사를 해준다고 할 수 있다.[54]

---

[52] Jan Waterink, 33.

[53] K. E. Nipkow, 118.

기독교 교육의 이론을 전개할 때 두 개의 전체 (Presupposition) 가 요청되는데, 하나는 성경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 성경관과 교육의 대상자로서 피교육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인간관이다. 특히 성경관에 따라 인간관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경관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성경에 대한 관점은 삶의 의미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어른이나 아이를 막론하고 가르침의 사역에 있어서 목표나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55]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서 친히 말씀이심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 (렘31:33)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과 선민 이스라엘이 친 백성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리라 본다.

이상에서 유대인의 종교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약속 성취를 원하는 유대민족으로서는 필연적으로 믿고 마음 판에 흔적을 남기며 또 따라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56]

상당한 시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기 이스라엘들 교육의 내용으로 성경을 들었고, 교육의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장하였다.[57] 그들의 주된 교육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관한 교육이었다. 곧 성경이 교육의 내용이 되었던 것이다.[58]

---

[54] 길 현주, 43.

[55] Ibid., 44.

[56] 성 수남, 28-29.

[57] Ibid., 80.

[58] 김 득룡, 302.

*. 신약성서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모델로 한 나눔의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쉐마교육 방법은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에도 심리학적인 시도와 교육학적 접근 방법이 있으나 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다. 어느 방법이든지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형성과 봉사정신의 함양에 있으며 그 구조는 '복음'이다. 따라서 복음의 체계는 신학이며, 기독교 교육의 바탕은 신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은준관 교수는 주장한다.[59]

그러나 기독교 교육은 이런 구조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인간의 관계구조가 인간과 인간사이, 부모와 자녀사이, 인간과 세계사이에 해석, 경험되는 과정으로까지 연장되고 전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하나의 독특한 교육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의 구조가(신학과의 대화) 있어야 하며, 또한 그 과정(교육 이론과의 대화에서)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구조와 과정이 어떤 '장'에서 만나게 될 때 학문의 이질적 갈등은 해결되어진다. 이런 기독교 교육의 장을 넬스 페레(Hels. F. S. Ferre) 교수는 교회라고 불리우는 기독교 공동체로 보고 있고, 한편 커트 레빈(Kurt Lewin) 교수는 개인과 환경이 함께 형성하는 관계 전체[60]라고 보고 있다. 즉 인격, 환경, 그리고 인격과 환경사이에서 오는 상황 때문에 행동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의 종합을 '장'이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여 '삶의 공간(Life Space)'으로서의 사회현상까지를 포함하는 전 상황을 말한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첫째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있으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근원이 되는 것은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이다.[61]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진술한 하나님의 교육목적 중 기독교

---

59 은준관, *교육신학*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12.

60 Ibid.

61 한미라, *"기독교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구원"* , 월간목회 9월호 (서울: 월간목회사, 1986), 78.

교육의 목적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다.

이것을 토대로 기독교인의 성숙의 목적에는 두 가지의 교육 가능한 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의도로 시작되어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함으로 끝난다는 것인데, 하나는 성도 개인의 영적 성숙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양성하는 일이다.[6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 교육의 일반적인 목적은 구원이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다. 인간을 예수와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과업이며 이것은 인간의 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 하나님의 교회나 그의 백성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성취된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해야하는 의무는 예수가 말했듯이 ‘제자 삼는 일’이며 그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기독교 교육은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영원히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음은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촉진적 목표로서 출발점(begining point)이 된다.

①. 기독교적 회심 : 각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제와 구속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한다.

②. 기독교인 예배 : 각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인 예배가 그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계속적인 부분이 되도록 돕는다.

③. 교회 회원 자격 : 각 기독교인이 신약교회에 지적, 활동적, 헌신적 회원이 되도록 지도한다.

④. 기독교적 지식과 확신 :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며 확신하도록 돕는다.

⑤. 기독교적 태도와 생각 : 각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적인 태도와 감사의 마음을 가짐으로 모든 일에 기독교적 태도로 접근하도록 지도한다.

---

[62] Ibid., 82.

⑥. 기독교적 삶 : 각 사람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습관이나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돕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독교적 행동규범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6. 쉐마를 통해 본 가정교육
(Family Christian Educational Component in Shema)

기독교 교육 목적, 내용, 방법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기독교 가정교육에 원리와 내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가정 교육의 목적

쉐마 텍스트에서 기독교 가정교육을 분명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쉐마 텍스트 속에 나타난 기독교 가정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다. 제대로 설정된 목적은 교수 자료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쉐마 텍스트의 교육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목적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이 되는 신명기 6장4-9절의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쉐마 교육의 목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명기 6장4-9절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 그리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왜 하나님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쉐마의 배경을 보면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마지막 설교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반복적 재확인이고 지나간 날에 주었던 중요한 율법들에 대한 복습이며, 이제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 기록이다.

언약의 중심적 내용에 대하여 각자의 인격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에 대하여 백성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63]그러므로 신명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주신

율법의 내용에 대한 단순한 복습이 아니다.

현재의 세대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 전해져야 한다. 새로운 세대는 자기 부모들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한다[64]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신명기 6장1절 후반에 "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6장 2절에 이어서 "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쉐마를 주신 이유가 풍요의 땅이지만 우상이 번성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 번성을 가져다 준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65]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자손들에게 지속적인 신앙전수가 이루어져서 자자손손(字字孫孫)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날이 장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2). 가정 교육의 내용

쉐마 교육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손손 전하는 신앙준수에 그 목적이 있

[63] 박기성, *마스터성경 종합요약자료집*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9), 55.

[64] Lawrence O. Richards, 김원주 역, *어린이 사역* (서울: 파라디온선교회, 1995), 19.

[65] Bruce H. Wilkinson, and Kenneth Boa, 정인홍,곽칠호 역, *한눈에보는성경*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0), 93.

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첫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며,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진인적인 헌신과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교육이 그 내용이 된다.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에 가까운 교육 내용이고 셋째는 신앙의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①. 유일하신 하나님(신명기6장4절)

유대인의 행위를 만들어 내고 그 행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기준은 유일 신앙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신앙과 행위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만들어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유대인에게 주는 의미는 절대적이다.[66] 유대인의 교육은 하나님의, 하나님에 관한 교육이며, 삶 자체이며 삶을 전개시키기 위한 것으로 삶의 방향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67] 유대인들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사실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다.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함을 교육 받았다. 유대인이 지난날 순교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적인 신이라고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역사적이란 말은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다.[68]

첫째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초월적인 힘을 발동하여 역사에 개입한 사실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현재 역사의 진향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이며, 셋째는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금후라도 그 창조 행위를 계속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이다.

---

[66] 최한구, 30.

[67] William A. Attkins, 507.

[68] 성서연구회, 283.

②. 전인격적인 사랑(신명기6장5절)

"쉐마 텍스트 주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 존재를 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은 '성결 교육'이기도 하다. 이 성결 교육은 거룩에 이르는 교육이다.

'거룩'은 히브리어로 '가다쉬'인데 그 의미는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킴'을 뜻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게 하는 "순결과 조화"를 의미한다.
'거룩'의 헬라어 '하기오스'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죄악된 삶과의 분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종합하여 거룩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죄악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을 뜻한다.[69]

거룩에 이르는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육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행한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길 원하신다.(fp 19:2, 20:7,26)

그러므로 전인격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선민으로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성결 교육이자 거룩에 이르는 신앙 교육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낸 후 애굽과 분리시키셨고 광야에서 계속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과 사랑을 교육시키신 것이다.

③. 말씀 중심(신명기6장6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율법)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들과 굳게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자자손손 가르쳐 지켜 행하면 축복을 주실

[69] 한춘기, 96.

것(신28:1-24)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신다(신28:16-68)는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출12:7-8, 24:3-8)라고 응답하면서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맹세하였다.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론과 장로들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전달되었다.(신5:31) 따라서 각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말씀의 소유자가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아버지는 자기만 말씀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다. 이것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복음을 받은 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며 화가 있을 것을 알고 두려워 한 것과 비교된다.(고전9:16) 그러므로 유대인 부모들은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생명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수시켜 '말씀 맡은 자(율법의 아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있다.[70]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구전에 의하여 살아 있는 말씀으로 가정 안에서 계속 전달되고 적용되는 교육이 수행되었던 것이다.[71]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 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토라(Torah:신의 교훈)였던 것이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의미하기도 했고, 법,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교훈서를 뜻하기도 했다.[72]

그리고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 자녀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출발한다. 성경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은 자녀들은 커서도 말씀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우선 중심의 신본주의 사상에 젖어 살고 있다.[73]

---

70 현용수, 135-138.

71 김남철, 42.

72 원용국, 10.

73 현용수, 108.

3). 가정 교육의 방법

쉐마에 나타난 교육 내용을 고찰하여 보았다. 위에서 언급된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교육 방법을 고찰하여 볼 때, 첫째는 반복과 암기를 통한 교육 방법(신6:6), 둘째는 강론을 통한 교육 방법(신6:7), 셋째는 시청각 교육 방법(신6:8-9)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반복과 암기를 통한 교육 방법

쉐마의 교육 방법 중 하나는 반복과 암기이다. 신명기 6:6에서 "마음에 새기라"의 강렬한 명령적 지시어[74]를 참작할 때 부모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서 본문을 암기했을 것이다. 부모들 뿐 아니라 지도자 모세도 교육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을 신명기 6:4-9, 11:13-21, 민수기 15:37-41까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대인의 교육 형식에도 반복을 통한 암송 교육이 있다. 어린이가 말 할 수 있을 때 부모는 그에게 토라를 가르쳐서 쉐마를 읽도록 하며 암송하도록 시킨다.
유대인은 학문하는 것을 '미쉬나(Mishna)'라고 일컫는다. '미쉬나'란 '반복'과 '교훈'을 뜻한다. 미쉬나는 토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구전 말씀을 모은 것인데, 토라만으로는 생활 속에 적용도 해석도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충하고 설명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미쉬나는 토라를 알아 듣기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것이다.[75] 교사외에는 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기에 교육은 말로써 주로 행해지고 학생들은 듣고 반복하여 암송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아동기는 이런 폭넓은 암기력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로 생각하였다.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이다' 라는 말이 있다. 학습은 단지 눈으로만 하는 것이

[74] 박윤선, p375-388.

[75] 최한구, 286.

아니라 눈으로 읽고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는 작업이다. 이렇게 되풀이 하다 보면 텍스트를 몽땅 암기해 버릴 수 있으며 그러한 반복의 과정을 통하여 그 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도록 함에 있는 것이었다.

②. 강론을 통한 교육 방법

신명기 6:7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강론이란 단어는 학술이나 종교 등에 관한 어떤 문제를 강설(講說)하고 토론 하는 것을 의미한다.[76]

부모는 자녀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질문을 통해 서로 토론하는 교육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질문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물어 보는 형식의 질문은 정보를 얻거나 토론을 시작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 보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

대안을 요구하는 질문은 어린이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산파식 질문은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잘못된 추론을 깨닫게 해 주며, 어린이들이 그들의 동기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게 해 준다.[77]

질문과 토론을 통한 교육 방법은 어린이들을 학습의 주체자로 끌어 들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학습자의 사고에 자극을 주어 학습의 효과를 주며 인지 발달을 돕게 된다. 그래서 유대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방법은 스승과 학생들 사이의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 그리고 토의와 설명으로 이루어졌다.[78]

---

[76] 두산동아사서 편집국, 71.

[77] 김희자, 99.

[78] 김남철, 316.

③. 시청각 교육 방법

신명기 6:8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육 방법은 시청각 교육 방법이다.[79] 교육에 있어서 시청각 방법은 구체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하여 상징화, 일반화의 과정을 도와 주며, 의미나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 또한 학습 동기를 의욕적으로 유발시켜 자발적인 학습 활동이 되게 자극하여 학습 결과의 지속성을 기할 수 있다.[80]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행하는 상징적 교육은 그들의 교육 특색이다. 그 상징을 봄으로써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질문하도록 유도했다.[81]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팔과 이마에 붙이는 식으로 '필렉터(Phylacteries)"라는 것이 있다. 또 "테필린(Tefillin)" 이라고도 한다. 우리말 성경 마태복음 23:5에는 "경문" 이라고도 한다.[82] 이는 13세 이상의 남자들이 기도할 때 차던 작은 가죽 상자로, 가죽 끈으로 묶어 고리가 있고 그 속에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것이다. 하나는 팔에, 다른 하나는 머리 위에 놓고 가죽 끈으로 묶는다. [83]

대문에 붙이는 것은 "메주자(Mezuzah)"라 하는데 신명기 6:4-9, 11:13-21의 두 성구를 써서 나무 상자나 금속 상자에 넣어 문설주(문의 양 기둥)에 붙이는 통을 의미한다. 경건한 유대인은 문을 드나들 때 그것을 만지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라는 시편 121:8을 외우고 그것에 입 맞춘다.[84]

---

[79] 현용수, 316.

[80] 김남철, 97.

[81] 정정숙, 29.

[82] 현용수, 317.

[83] 김남철, 48.

[84] 민영진, 261.

4). 교육의 장 : 가정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학교를 찾아 볼 수 없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그들과 함께 생활 경험을 통해 나눔으로써 자녀들을 교육한다.[85]
부모들은 공식적인 교육 시간과 장소들을 계획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의 가정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도 이와같은 가르침을 세밀히 시행해야 한다.

영적인 일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가정의 현장에서 일어나며, 가정 환경의 모든 구석구석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86] 이러한 사실은 신명기 6장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에서 보듯이 자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항상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부모의 계획에 의한 가르침이 있기도 하지만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적인 경험을 통한, 생활에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 자녀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 권고는 공식적인 가정 예배 시간을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비공식적인 시간들 또한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전 시간대에 걸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8절의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삼고" 라는 명령은 비록 보수적인 유대교에 의해 과거에는 문자적으로 해석되었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부모의 행동(손)과 태도(미간)에 영향을 주며 동기를 불어 넣고 지시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룩한 생활과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9절의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 할지니라" 의 명령은 사적인 영역(문설주)과 공적인 영역(바깥문) 모두에서 경건한 생활양식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생활은 경건한 부모가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

[85] Richards, 21.

[86] 김희자, 124.

해 자녀들에게 영적인 일들을 가르치는 교실이 된다.[87]

다시 말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은 지연적인 혈연 관계 이상의 예배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로 이해하여 인간 형성의 양축으로 삼아 종교 의식과 민족의식을 어려서부터 교육하고 애국심과 신앙심을 다른 기관에 기대하지 않고 가정교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의 기준 단위가 되는 가정은 부모의 자각 아래 가정과 자녀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해야만 한다. 가정은 가장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이다.[88]

---

[87] Ibid., 125.

[88] 김미경, 21.

7. 한인 교회에서의 쉐마교육

쉐마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을 고찰하여 볼 때 단순한 이론이 아닌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분명한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을 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부모를 통하여 매우 철저하면서도 지속적인 생활의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쉐마를 통하여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적용을 가정과 교회로 나누어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적용은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 설정과 교육의 장으로서 가정회복, 교사로서 청지기로서 부모의 책임 각성, 사족간의 유대 강화를 제시하였고, 교회에서의 적용은 가정과 교회의 협동 프로그램 계발, 지속적인 부모 교육, 다양한 자료 개발 및 제공을 통해 가정의 신앙교육을 도둘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 가정에서의 적용

①. 가정교육의 목적

한국의 가정교육은 공교육 기관과는 달리 "비형식적이고 무의도적인 과정"[89]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체계화된 교육내용이나 명확한 교육목적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굳이 교육이 존재한다고 하면 가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 순간 경험하는 사실들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뿐이다. 그러나 초기 이스라엘인들은 오늘날의 가정교육처럼 무계획적이며 무의도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쉐마를 통하여 볼 때, 그들은 나름대로의 분명한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과 방법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 가정들도 먼저 분명한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을 알고 있어야 한다.

---

[89] 전풍자, 259.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정 할 수 있겠지만 본 논문을 쉐마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쉐마의 교육 목적을 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쉐마의 교육 목적을 기독교 가정교육에 적용한 이유는 쉐마의 근본 정신, 즉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는 데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90]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로 신명기 6장 4-5절의 쉐마 말씀을 주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막12:29-30)

그러므로 쉐마의 교육 목적을 적용하여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고, 둘째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의 기독교 가정교육의 목적은 앞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②. 교육의 장으로써 가정회복

하나님은 인간을 가정에 대한 욕구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 가정은 성장한 어린아이가 새로운 가정이란 연합 속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안식, 보호, 돌봄, 소속감, 교육환경, 그리고 안정된 토대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91] 그러나 교육 방법이 점차 제도화되어 격식을 갖추게 되고, 생활 양식의 분업화의 영향으로 부모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교육의 중심은 점차 가정에서부터 정규기관으로 옮겨

---

90 현용수, 319.

91 Ted Ward, 21.

가고, 교육의 책임은 전문적이며, 직업적인 교사에게로 위임되고 부모들은 교육보다는 다른 일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되어,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유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각종 문제 발생의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92]

또한 오늘날의 기독교 가정은 세상 속에서 도전해 오는 세속의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으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하여 기독교 가정이 세상을 이끌고 나갈 지도력을 상실하였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등, 기독교 가정과 일반 가정과의 차별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누군가 "가정은 역사를 써 가는 손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결코 감상적인 미사 어구가 아니다. 이 말은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오늘날 가정은 미래의 교사, 목사, 의사, 과학자, 사회학자, 어머니, 아버지를 만드는 가정 근원적인 훈련 장소이다. 자녀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교육적인 공헌을 하는 것은 학교, 교회, 보이스카우트 등과 같은 단체가 아니라 바로 가정이다.[93]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발전한다 해도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가정은 교육의 중심이며 교육의 장이다.[94] 교회와 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이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을 강조할 수는 있어도 가정 대신 이런 책임을 질 수는 없다.[95]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공헌을 하는 일차적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회복해야만 한다.

---

92 김득렬, 8.

93 Howard G. Hendricks, and other, 423-424.

94 김희자, 121.

95 Ibid., 123.

③. 교사로서의 부모

이스라엘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거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신 분이 가장 훌륭한 부모이다.

유대인들에게 부모는 육신을 낳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신을 낳아 주신 정신의 부모, 즉 교사이기도 하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에게 맡긴 가장 큰 사명은 자녀교육이다.

'쉐마' 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다.(신 6:4) 그러므로 부모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녀들의 청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가정에서 살면서 그의 성격과 개성이 가정의 독특한 분위기와 사상과 표준과 신앙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정 생활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또 부모가 자녀들의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먼저 주님의 돌보심에 있어야 하며,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복음을 전달해 주는 매개의 역할을 해야 한다.[96] 부모는 자녀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사명감을 갖고 잘 양육해야 한다.(시 127:3-5) 이 세상의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를 소중히 여기며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청지기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님들의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같이 삶을 살아가고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날 부모들은 영적인 면에서 자녀들을 돌봄을 게을리 하고 있다. 부모는 신앙인으로서 자녀들과 부부 각자의 마음을 서로 도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영적인 면에서 존중하며 신앙공동체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96] Smart. J. D.. 246.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할 만큼의 역량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다. 어쩌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경건의 훈련들, 기도의 삶, 전도하는 생활등에서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한다.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교사로서 자질을 갖추고 이제는 아이에게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아이를 앞에 앉히고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방심이 강한 자녀들이 부모의 행동을 본받고 모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97]

이스라엘 가정의 교육은 부모 교육으로부터 시작되며 자녀들은 교육 받은 부모들을 통하여 자연히 연쇄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먼저 공급 받는 이는 그들의 어머니였다. 그들이 자란 다음에도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계속 어머니로서의 충고를 한다. 또한 아버지들은 그 가정의 제사장이며 교사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자녀를 교육도 시켜야 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해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가르침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삶과 일치 되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지만 막상 부모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바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각자의 역할들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식을 교육하는 일을 어머니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신앙과 생활 속에서 양육해야 함은 자명하다.

현용수 교수는 아버지가 자녀을 직접 가르칠 경우 얻는 다섯 가지 유익함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둘째는, 자녀는 어렸을 때

[97] 오인탁외 4인, 126.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한다. 셋째는 유대인 아버지의 교육 방법이 귀납법적 질문의 형식은 좋은 조기 천재 교육의 방법이다. 우리 아버지도 이러한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하면 좋다. 넷째로, 자녀는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아버지의 사상과 생활 풍습을 닮게 된다. 즉, 세대 차이가 없게 된다. 다섯째 아버지의 사상과 더불어 교육의 방법도 그대로 본 받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탁 받은 교사이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해야 함이 의무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았다.[98]

현대는 어떠한 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어머니가 자식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게 되어 가는 현 세대 속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더욱 강조 되어야 한다.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모든 가족들이 식탁에 둘어 앉아 하루의 삶들을 나누며 그날,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자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항상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④. 가족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가정예배

통계에 따르면 양친과 함께 살더라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보통 양친 가정의 10대보다 음주, 흡연, 마약에 빠질 염려가 68%나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99]

97년 5월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는 10명 중 2명 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100]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대

98 은준관, 197.

99 “아버지와 사이 나쁘면 자넏들 탈선”,<문화일보>, 1999, 9.13.

100 “아버지, 자녀간 대화 하루 1시간 이상 18%”, <경향신문> 1997. 5. 22.

화 시간은 30분 미만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이 25%, 1시간 이상이 18%였으며 전혀 대화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5%나 됐다. 자녀들은 의논 상대로 어머니(38.5%)로 가장 많이 꼽은 반면 아버지라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가족과는 의논하지 않는다는 대답도 33%나 됐다.

이처럼 유대 관계가 약한 가정 내에서 효과적인 자녀 교육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프로그램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101]부모와 자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점점 가정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효과적이고 올바른 기독교 가정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가정예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가정예배는 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레모어는 가정예배를 통해 예배의 효과, 교육의 효과, 훈련의 효과, 가족 결속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102]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급박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 구성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정기적인 가정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가정예배가 딱딱하고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정예배는 자녀 중심이어야 하고, 미리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삶에서의 적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하는 시간은 가정에 기쁨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가정 예배를 통해 함께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는 경험을 부모와 자녀가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경험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순간으로 바꿀 수

---

[101] 김희자, 105.

[102] 클라이드 M. 네레모어, 8.

있을 것이다.

2). 교회에서의 적용

가정에서의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에 대해 무관심해 왔다. 이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독교 교육 모두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103]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가정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와 가정은 교육의 동반자 관계로서 가족의 양육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 가정교육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하여야 한다.

①. 가정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과거에는 생활의 모든 활동이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종교 생활도 주로 가정에서 행해졌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가정은 이미 가족 구성원의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없으며 온 가족은 하루 종일 뿔뿔이 흩어져 활동하고 가족 구성원 각자가 분주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일 기회가 별로 없다. 가정은 마치 가족들의 숙박소처럼 되어 버렸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되살리기에 매우 어려운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전부 교회학교 교사에게 일임해 버리고 가정에서의 신앙지도를 포기 하고 있는 현실이다.[104]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신앙 지도를 교회에 일임해 버리고, 교회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에 힘쓸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교회학교의 커리큘럼은 교사와 학생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부모들을 제외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회가 기독교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가정교육은 교회와 가정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관심과 사랑을

---

[103] 김희자, 130.

[104] 전풍자, 190.

가져야 하며 교회는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 형태는 이렇다. 특별히 주일을 예로 보면 아침 일찍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지고 낮 시간쯤 되어서 장년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물론 교회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은 다양한 형태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자녀들과 부모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가족이 함께 제사(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가 함께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눅2:41-51). 이처럼 교회도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물론 예배 후에 성경 공부와 활동은 부서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가정 중심 예배는 년 중 행사와 같은 이벤트성의 가족 예배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신앙 과제를 제공하여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모는 자녀가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 했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고백 할 수도 있을 것이며 가정예배의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가족 수련회 및 가족 체육대회, 가족 신문 만들기,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가족 축제 등 가족 중심의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비해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은 시간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부족한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이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홈 스쿨을 제안 해 본다. 이것은 교회 교사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정을 편지나 전화로 심방하는 것을 말한다. 아니면 인터넷 이메일은 통하여 심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교사가 아이의 집을 방문하는 것도 좋다.

우선적으로 각처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시간적 여유나 영적 성숙의 부족으로 인하여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교회 교사들이 그런 일들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성경을 보고 훈련을 하고 동기 부여 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 성숙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도 있다. 교사가 일주일에 한번 학생을 만나서 그들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문제들 혹은 장점. 단점들을 알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실제적 필요성을 모른 채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 또한 건강한 교육이 아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전인격적인 삶의 문제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 이런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부모 교육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첫 스승이며, 어머니의 품은 첫 교실이다. 또한 아이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 이러한 부모의 중요성은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처럼 부모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05]

부모 교육이란 부모로 하여금 자녀 교육의 책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부모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를 지니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과정을 뜻한다.[106]

그리고 부모 교육의 목적은 부모들에게 성인으로서 그리고 효과적인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성장 발달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

[105] 정정숙, 248

[106] 방현덕, 241

을 갖게 하며, 이에 적절한 지식과 능력을 갖도록 도와서 부모 자신의 발달은 물론 효과적인 교육자 또는 교육 동반자로서의 부모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107]

부모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자녀들을 적절히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을 자동으로 갖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108] 그러므로 부모는 균형 있고 책임 있는 권위를 행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진실한 기독교적 사랑을 보여 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어린이의 심리적 발달, 영적 발달 등의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을 위하여 교회가 부모를 교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회에서는 부모들의 교육적 책임을 각성시키고 세부적인 활동 지침을 세울 수 있는 지속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모 자신을 위한 교육으로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교육하는 내용과 둘째는 자녀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녀의 영적 특성과 지도 방안, 이성 교제의 문제와 지도, 진로지도, 자녀의 시간 관리, 물질관리, 건강관리, 성교육 등을 들 수 있다.[109]

자녀 교육에 성공적인 부모가 되게 하는 것은 이 나라와 가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다. 교회는 자녀 교육에 성공적인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해 지속적인 부모 교육과 세미나, 부모 교육에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부모 공과 등 개발하고 권장하여 부모는 자신과 교육의 대상자에 대한 성경적, 심리적, 신학적, 교육학적인 이해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효과적인 신앙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07] Ibid., 243

[108] J. Richard Fugate, 17

[109] 정정숙, 264-266

③. 다양한 자료 개발및 제공

가정이 기독교 교육을 위한 일차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자료와 프로그램은 너무나 부실하다. 또한 기독교 가정은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한다. 예를들어 어떤 가정은 유아 자녀를 두고 있고, 어떤 가정은 청소년, 어떤 가정은 청년이 있기에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성경적, 심리적, 신학적, 교육학적인 다양한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각 가정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요즘의 아이들은 멀티미디어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는 효과적인 가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을 익히고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다.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첫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이다. 아날로그 정보는 가공하지 않는 자연 상태의 정보이다. 그러나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면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미디오와는 달리 문자, 그림, 영상, 음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여 이들을 동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재 특징은 통합성(Integration)이다. 종래에는 문자, 음성, 그림, 영상이 각기 다른 전용장치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는 하나의 소프트 웨어, 하나의 프로그램, 하나의 기지로 네 가지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기억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각 미디어간의 구분이 허물어져 결국은 하나로 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로 나아가고 있다.

세 번째의 특징은 쌍방향성(Interactivity)이다. 쌍방향성은 화면과 묻고 답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화면과 대화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정의 PC가 도서관이나 사무실, 방송국, 병원 등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네트워크이다.

멀티미디어의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멀티미디어란 컴퓨터 통신, 가전 제품의 기종들이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는 특징을 갖는다.[110]

멀티미디어 교육의 실시는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가하고 학습 의욕도 고취할 수 있으며 창의성을 함양하고 각자의 학습 진도와 능력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의 개별화가 가능해진다.[111] 때문에 교회들은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자료들을 각 가정과 연계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올바로 활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10] 총신대학교 부설 기독교 교육 연구소, 84-86.

[111] Ibid,. 93-94.

8. 과제 평가 (Project Evaluation).

동부교회는 믿음의 정도, 연령, 학식, 경제수준, 성장과정, 이민자로서의 신분상태 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민자가 가지는 삶의 고단함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세워주고자 하는 35년된 작은 공동체이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면서 동부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경쟁으로 인한 문제이다. 한 40여 년 동안 어려운 이민의 삶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관계가 매우 두텁고 친밀하고 보인다. 마치 새로 온 사람은 이들의 관계와 교제의 틈새를 파고들기 어려울 정도로 대화의 분위기도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안에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로 이민의 역사가 비슷비슷하다 보니 경쟁이 있어 사업이 어려워진다든지 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어느 집안이 사업이 잘되는 것 같거나, 자녀들이 좋은 혼처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들 간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으로 얼마 동안 서로의 관계와 교제가 서먹해지고 이런 분위기는 신앙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배를 마치고 식사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데 마음이 상한 사람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것이다.

둘째는 이민 목적의 차이로 인한 문제이다. 이민의 역사가 40여년 정도 되는 분들은 대개 한국이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우니까 좀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민을 오는 사람들은 자녀들 교육문제나 Business 확장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다. 대개 이민생활이 오래된 분들은 미국에 빈손으로 오다시피 와서 밤고생하여 생활의 터전을 닦았으나 최근에는 오는 분들은 눈에 띄게 달라진 한국의 경제성장 덕분으로 교육수준도 있고 어느 정도 이민 정착금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사람들과 막 이민 온 사람들 간에 처음부터 생활수준이 다른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이민을 먼저 오신 분들이 어떤 자괴감(自愧感)에 빠져 새로

오는 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하여 새로 온 사람은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셋째이민의 역사차이로 인한 문화차이이다. 이민의 역사가 40여년이 넘는 분들은 한국에 대한 문화와 사고가 40-30년 전의 모습에 갇혀있는 것을 본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특히 한국은 경제와 문화 교육과 생활수준이 놀라울 만큼 달라졌다. 삶의 질과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서로 다른 것이다. 이들 간에 신앙생활에 대한 기준과 헌신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일들로 기존의 성도들과 새로 막 이민을 오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여기에 가치관과 문화차이로 인한 대화의 Gap생겨 대화 가운데 상처를 받고, 소외감을 느껴 신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1). 목적 (Goals)

①. 상처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쉐마 교육을 통하여 치료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처입은 사람은 자신이 성인 아이인 줄도 모른 채 속에 있는 분노를 바로 이웃에게 발산하므로 이웃을 분노케하고 다투어 왔다. 그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오직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쉐마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사람과 함께 성경을 공부해 나가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처받은 마음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30년이 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내왔다. 성도간에, 또는성도와 교역자간에 일이 생기면 결국 한 쪽에서 교회를 옮김으로 끝이 났다. 이제는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으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②. 돌봄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들이 다른 성도의 상처를 만져 주게 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돌봄의 사역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을 먼저 훈련시켜 그들이

이제 다른 상처입은 성도를 돕도록 쉐마 교육을 강화 시켜 나간다. 마치 예수께서 주를 부인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회복시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성도들을 돕도록 격려하고 세워 나아가야 한다

③. 후대에게 이 사역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본교회의 교인 형편을 살펴보면 약 30여명의 중직자들 가정에 자녀들이 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정은 두 가정 뿐이다. 이것은 교회의 성도수가 지난 20여년동안 계속 줄어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후대에게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 주는 일이 잘 되어 오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모세부터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 오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선민교육의 키워드인 쉐마(신명기6:4-9)에서 찾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쉐마교육을 잘 시키므로써 그들이 다음세대를 책임지고 나가도록 해야 한다.

2). 목표 (Objectives)

①. 성도들에게 쉐마교육을 통하여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도록 전인치유 수양회를 실시한다.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 시대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인 돌봄의 사역이다. 이를 위하여 전인치유수양회를 개최한다.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정도로 기도원등 방해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운영한다. 그리고 새로 오는 새신자들은 반드시 이 수양회를 참여하는 것을 의무로 하여 교인으로 받아 들인다.

②. 둘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쉐마교육) 제자화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명기 6:1-3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율례의 법도, 즉 성서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도 그의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부탁을 하신다.

③.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그러면 왜?,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은 성서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가? 성서 학습의 목적은 "발달의 모든 단계에 처해 있는 학습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대화의 경험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학습자로 하여금 성서에 기록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신앙으로 응답하는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습자들이 성서의 교훈에 대하여 알기만 하면, 그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암기식, 주입식 방법으로 성서학습을 이끌어 간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은혜로운 사랑 가운데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의 관계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단순히 성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없다. 성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지식만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성서는 또한 '생명과 성장' 이라는 열매를 맺는 목적을 가진 '씨이다. 이 '생명과 성장의 씨앗' 은 인간의 마음 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들며, 또한 영의 양식이 되어 생명을 증진시켜서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성서를 통해서 변화된 개인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생활화하는 삶이다. 물론 이 응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응답이다.[112]학습자들에게 각각 그들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경험을 갖도록 하며, 실제로 학습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다음으로 성서학습의 목적에 일치하는 학습원

---

112 김은경, *"교회 청소년을 위한 성서학습지도"*,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1990, 37.

리로서 대화의 학습 구조와 성서 속에서 학습되어야 할 학습과제와 참여의 학습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ㄱ. 학습구조-대화

먼저 성서 교수-학습을 가능케하는 학습구조로서 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 그룸은 대화는 주체대 주체의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대화의 구성요소는 말하는 것과 귀 기울이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화에 임할 태도가 되어 있노라고 말할 때 자신들이 말할 태세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화는 구성요소에서도 있듯이 말하는 것 만큼이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란, 다른 사람들의 단순한 말이나 몸짓 이상의 많은 것들을 즉 그 사람의 표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전체 세계와 그 사람을 들을 수 있는 귀 기울임을 말한다. 그룸의 이같은 정의 외에 대화의 또 다른 정의를 부버는 "나-너"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한다. 이때의 인격적인 관계란 "너"를 향한 '나'의 존재론적 요구만이 아니라, "너"가 "나"에게 말하려는 요구를 듣고자 하는 의지 사이의 민감성의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때 "나"만을 위한 존재론적인 요구가 강할 때 대화는 독백으로, 인격은 비인격으로, 나와 너는 나와 그것의 관계로 바꾸어 짐을 주의 시킨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서 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습구조로서 대화는, 주체 대 주체의 만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나와 너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태도로써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도 일방 통행식의 학습이 아니라 쌍방 통행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즉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획일적인 정답을 내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긍정이든 부정이든간에 자신의 통찰력으로 진리를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와같은 대화의 태도와 더불어 성서 학습에서 밝혀야 할 중요한 대화의 양태로써 대화는 참가자들 사이의 인격적인 상호 교환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또한 있어야 하는, 즉 우리의 상호간의 내적인 대화가 하나님과의 내적인 대화로 몰입되는 경지에 도달해야 함을(성서학습의 끝에 기도 하거나, 때로는 예배의 형태를

취한다) 그룹은 주의시키고, 이러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작 전에 완전한 신뢰, 개방성, 사랑, 겸손, 신앙, 희망 등의 전제 요구들이 필요함을 말한다.

ㄴ. 학습과제

성서 학습의 학습구조로서 대화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수립에 이어 우리가 성서에서 학습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학습과제란 일종의 역동적인 과정으로서 어떤 교수-학습 상황 아래서 갖는 경험들을 분석하는데 실제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 교육에서 학습과정은 밖으로부터 온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에 인간들이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현재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볼 때, 다음과 같은 학습과제들이 도출 될 수 있다.

ㄱ). 복음의 빛 안에서 관계의 전 영역을 접하게 된다.(관계수립)

ㄴ). 관계의 빛 안에서 관계의 전 영역을 탐구한다.

ㄷ). 복음의 빛 안에서 관계의 전 영역속에 지닌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다.

ㄹ). 복음의 빛 안에서 관계의 전 영역속에 지닌 가치를 개인적으로 받아 들임

ㅁ). 복음의 빛 안에서 관계의 전 영역에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맡아 수행함

위와 같이 와이코프의 학습과제들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 먼저 복음을 듣고, 다음 반응이 따르는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반응이라 함은 곧 성령의 행하시는 능력 아래 나타나는 학습자의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복음을 귀 기울이는 데서, 첫째로 신-인 관계가 수립되고, 둘째로 그 관계를 탐구하고. 셋째로 탐구를 통해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응답하는 일이 곧 넷째로 개인적으로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수용하고, 다섯째로 관계의 전 영역에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ㄷ. 학습방법–참여

학습구조, 학습과제에 이어 성서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참여의 요소를 성서학습 방법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만일 교육이 아는 행위라고 할 때, 그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전 실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화하는 작업에까지 참여함을 교육은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습구조에서 본 대화는 세계와 실재(문제화된 실존적 상황)에 매개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며, 그 만남은 인격적 내지 심리적 차원에 머물게 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학습과정의 역동성을 위해서 이 대화적 관계를 기초로하여 "참여를 통한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 점에서 대화는 인격적인 관계를 넘어서 행동변화로서의 대화이며, "나–너"라는 주체 사이에서 실재를 알고 그 실재를 변혁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대화인 것이다.

그러면 학습방법으로서 참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면, 뵐케는 학습론과 신학의 만남을 시도하면서 기독교 교수–학습론을 "창조적 참여"로 설명하고 있다. 창조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행위를 내포하는 말로써 제한성이 없고 기독교 교육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독특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힘의 상징이다. 즉, 학습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참여가 소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참여라는 의미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물려 돌아가듯이, 전투 명령을 받은 군인이 임무를 책임지고 지키듯이, 약혼한 남녀가 신실하듯이, 상호작용, 만남, 계약, 서로 책임을 용납하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창조적 참여"는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 인간이 참여하고, 인간이 참여하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배우는 과정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은 인간을 새롭게 하시며, 학습자의 참여는 인간의 모든 관계에 대하여 만남과 책임수행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참여를 학습방법으로 제시할 때 다양한 참여의 방법론이 나타날 수 있다. 레티 러셀은 참여의 방법론으로 성례전, 팀 티칭, 봉사행위 등을 제시하였고, 파울로 프레이리는 현장에 참여하는 일로 시작해서 그 얻어진 산 경험과 소재를 반사하여 그곳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은 이후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현장을 변화시

키는 “행동-성찰-행동”이라는 프락시스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모두가 참여를 통한 방법들이다. 요약하면, 성서학습을 가능케 하는 학습구조로서 대화를 통한 인격적인 관계 형성과, 복음을 듣고, 해석하고, 반응하는 학습과제와, 참여를 통해서 성서학습을 살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성서 학습의 원리로 살펴 보았다. 이러한 학습원리에 따라 2009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2010년 3월 현재까지 실시하였다.

3). 시행과정

① 성도들 의식의 변화를 위하여

쉐마 교육은 이론으로만 공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학습과정을 통하여 상처받은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여 치료를 받도록 도와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상처입고 힘들어 하고 있는 다른 성도를 도와주는 곳까지 이르게 한다.

먼저 대상을 선정하여 2009년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회를 갖으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계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고 전인치유수양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하여 그의 공생애 동안 “눈높이”의 사역을 하신 것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시면서 “돌봄”의 사역을 하신 것도 “교통”과 치료를 하시기 위함임을 교육한다.

참여한 성도들이 이해하고 치유받았음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4월과 5월에 양육세미나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토대를 든든히 세우도록 도와주고 매주 성경일기, 묵상훈련을 안내해 주며 나누는 시간에 간증하도록 격려해 준다. 그리고 7-8월에 있을 성경사경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석하도록 도와 준다.

성도가운데 30%는 참여할 것이고 그중에 80%는 변화가 일어나리라 본다. 19세기 전도자 R. A. Torrey는 목회적 돌봄에 대하여 "어느 개교회가 성도들을 돌 볼 때, 그들의 의무와 특권을 잘 이해하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와 새 신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합하게 되어서 커다란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한 바와 같이 커다란 질적 부흥의 불씨가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ㄱ. 개인성경읽기

매일 주간 성경문제(30문제)를 내주고 다음주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채점을 하여 다시 돌려준다. 성경읽기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ㄴ. 명상의 시간갖기

매일 성경을 교재로 하여 매일 묵상을 하도록 하고 주일 낮 목장모임시에 나누도록 한다. 묵상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ㄷ. 강해설교하기

주일오전예배에는 성도들이 읽은 말씀중애서 본문을 정하여 설교하고, 매일 새벽기도회시에는 구약의 첫부분부터 차근차근하게 강해해 나가고 삼일기도회시에는 성경의 맨마지막 부분을 강해해 나감으로 성경의 균형을 잡아준다.

ㄹ. 성경세미나

봄과 가을에 '성경의 파노라마' 를 강의하여 성경전체의 맥을 잡아 준다.

ㅁ. 성경사경회

여름과 겨울에 '성경통독사경회' 를 개최하여 말씀의 위력을 체험케 한다. 이

때에 말씀에 사로잡혀 철저히 회개하고 헌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헌신한 자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게 한다.

ㅂ. 전인치유수양회

한해 회기가 시작되는 12월과 6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회 처음 나오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구조변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오래 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은혜로운 찬양대를 만들고, 주일 오후 시간은 양육을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쉐마 교육을 위한 재정을 넉넉하게 확보하여 성도들을 도울수 있도록 한다.

본 Project를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며, 은혜 받은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돌봄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여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한 몸 공동체를 이루도록 한다.

5). 실제 활동

성도들 개개인들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서로 돌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뉴욕 동부교회의 원하는 "Unity"이다. "전인치유 수양회" 와 "양육 세미나"와 그리고 계속 되어지는 주간성경읽기, 묵상훈련,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사

경회등을 실시하며 성도들을 격려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진행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맡기고, 상처준 사람을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는 일을 하도록 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함께 돌보는 사역을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였다. 이전에 이들의 교회생활이 수동적이고, 타의적이었는데 쉐마 교육을 통하여 변화 경험했기에 이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눈높이를 맞추시며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돌봄의 사역" 을 실천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동참하는, 재생산의 단계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갔다.

①. 개인성경 읽기 진행

ㄱ. 주일마다 **주간 성경문제지**를 만들어 주보사이에 넣어 배포하였다.

ㄴ. 문제는 30문제롤 단답형 문제로, 성경의 범위는 7장에서 10장으로 하였다.

ㄷ. 성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으며 문제풀이를 하여 다음 주일에 가져 오게 하였다.

ㄹ. 교회에서는 수거하여 채점을 한 후 정답지와 함께 격려의 글과 함께 다음 주에 돌려 주었다.

ㅁ. '동부교회 세계비전 제자대학'을 세워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성경공부를 주관하게 하였다.

ㅂ. 진행하기전 주보 광고란에 올리고 성경읽기 습관을 길러주어 쉐마의 내용을 알고 살아 가기 위함임을 목사가 설명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ㅅ. 결과

처음 시작한 성도들은 28명이었다. 출석 성도중 70%가 시작하였다. 그러나 점점 그 숫자는 줄어 들어 20회가 되었을 때는 17명으로 마지막 신약성경이 끝날 때까지 완주한 성도는 11명이었다.

ㅇ. 평가

매주 성경읽기를 완주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이 생겼고 성경에 대한 자신감과 완주 했다는 성취감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이 세워졌다. 특히 매주 깨달

은 말씀을 적어보고 생활에 적용하기를 해 나가므로 가정과 교회에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던 노년층들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부정적인 면은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다. 어떤 성도들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성도들은 배움이 없어서, 또는 하고는 싶으나 일을 하기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명상의 시간갖기

ㄱ. 먼저 Q.T 세미나(Quiet Time)를 실시하여 우리에게 왜 Q.T가 필요한지를 세미나를 통해 가르치고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하여 조별로 나누도록 하였다. 세미나는 봄, 가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주로 주일 오후 시간에 세미나를 가졌다. 할 때마다 등록비를 받았다. 평균 30명 정도 참석하였다.

ㄴ. 새벽기도회 시간에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를 해 나가되 한국성서유니온에서 발간한 매일 성경을 사용하여 Q.T식으로 말씀을 묵상해 왔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1년6개월 동안 열왕기 하 마지막까지 진행하고 있다.

ㄷ. 메시지의 내용은 Q.T 세미나에서 강의한 대로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아선포하고 있다.

ㄹ. 그리고 주일 낮 목장모임시에 주중에 자신이 Q.T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였다. 각 목장의 목자들은 잘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였다.

ㅁ. 또한 주일 예배 설교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중에 읽은 말씀 중에서 본문을 정하여 말씀을 선포 하였다.

ㅂ. 결과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들이 대부분 개인적으로 Q.T를 해 나갔다. 그러나 중반이 지나 연말이 가까울 때는 20명씩이 참여하였다.

ㅅ. 평가

전에는 개인적으로 오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본 일이 없던 성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가려

는 노력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겨 났다. 이들이 교회 생활 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 생활을 해오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일이 생겼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전에는 교회 물건들을 자신이 필요할 때에는 가져가 사용하였던 일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만 두었다. 그러나 나이든 성도들과 관심없는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일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③. 강해설교하기

실시: 주일오전예배에는 성도들이 읽은 말씀중애서 본문을 정하여 설교하고, 매일 새벽기도회시에는 구약의 첫부분부터 차근차근하게 강해해 나가고 삼일기도회시에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강해해 나감으로 성경의 균형을 잡아주었다. 실제로 새벽기도회시에는 창세기부터 강의하여 역대상까지 들어 갔으며, 주일 오전예배시에는 마태복음을 강의하여 7장까지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요한 계시록을 강의하여 지난 1월에 마지막장까지 끝낼 수 있었다.

평가: 일주일에 10번이상 설교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문 선택에 대한 갈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말씀의 맥을 잡아 나아갈 수 있었다. 성도들도 다음 설교를 예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가 쉬어졌다고 하였다.

④. 성경세미나

실시: 봄과 가을에 ‘성경의 파노라마’를 강의하여 성경전체의 맥을 잡아 주었다.

구약의 파노라마 :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6주 걸쳐 실시 하였다.
참석년인원 120명,
강사: 정봉기 목사

신약의 파노라마 : 2009년 1월 10일부터 2월25일까지 6주에 걸쳐 실시 하였다.
참석 년인원 100명,
장소: 본교회 예배당

강사: 정봉기 목사

평가: 참석자들의 대부분의 진술은 대단히 좋았다이며,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면을 더 아쉬워 하였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⑤. 성경사경회

실시: 여름과 겨울에 '성경통독사경회'를 개최하여 말씀의 위력을 체험케 하였다.

1차 여름 성경통독사경회 : 2009년 8월10일부터 15일까지
장소: 본 교회당과 교육관
참석년인원 100명.
강사: 정봉기 목사

평가: 참석자들의 대부분의 진술은 대단히 좋았다이며, 청년들이 주로 참석하였으며, 담임목사 가족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못한 면을 더 아쉬워 하였다.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이해시켜 휴가등 시간을 내도록 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 사경회였다.

⑥. 전인치유수양회

실천: 일시: 2008년 8월30(토)~9월 1일(월)
장소: 스토니 포인트 수양관
참석인원: 100 명

평가: 전교인이 참석하여 의미가 있었다. 참석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았다고 하였

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모처럼 함께 도시를 벗어나 산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적함을 누릴수 있었다는 것에 대만족이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숙소의 청결 상태와 음식이 서양식이었던 점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미리 성도들을 교육하여 자기 자신을 같은 목장 식구들에게는 평안하게 열어 보이는 것을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양회의 목표가 상한 마음을 치유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들어내지 아니하면 수련회의 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련회보다는 그냥 서로 서로 밤새 이야기하며 지내며 육신의 쉼을 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더 좋은 수련회가 될 것이다.

전체 평가: 성도가운데 30%는 참여할 것이고 그중에 80%는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결과를 살펴 볼때 참여도는 50%, 변화는 30% 정도로 보고있다. 참여도에서는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본다. 그러나 변화도에 있어서는 반에도 못미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는 습관의 변화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고, 둘째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지 않은데 있다.

9. 자기 평가 (Personal Evaluation)

1).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요10:10)라 하시며,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며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막10:45)고 밝히면서 우리에게 섬기는 Leader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의 모범은 그가 몸소 실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말씀보다도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 온다. 섬기는 Leader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하고 또 그 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또한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가장 선행적인 조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요10:14) 하신 말씀처럼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본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를 잘 아는 일이다.

첫째로 성도들을 잘 알기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성도들을 잘 안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겉으로 들어난 모습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고통과 연민의 정을 느끼시며 눈물을 흘리셨던(요11:35)것 같이, 잔칫집에서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셨던(눅7:33-34)것 같이, 이들 내부에서 벌어지는 고통와 갈등 또한 이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이해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도 사탄에게 예수님이 당하심(마4:1-11)같이 이해 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피곤에 지쳐서 잠이 들기도 하셨으며(눅8:23), 배고픔을 느끼셨으며(마21:18), 우리 인간이 경험 할 수 있는 모든 육체적 경험도 직접 경험하시고 아심 같은 이해와 앎이다.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인간의 눈에 “눈높이”를 맞추어 제

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며 모든 사람들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함께”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겠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요10:30)라고 하시며 우리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헌신자들은 상처입은 성도들과 동거동락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2). 유능성 개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3년을 훈련시키시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3년 동안 훈련하였다. NYTS에서 공부하는 기간을 이민 목회를 위한 목회자로서 자신의 유능성을 개발하는 기간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이민목회는 시간이 가면서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유능성을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개발을 위하여 깊이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 좋았다.

모든 부분이 이민목회자로서 부족하지만 특별히 동부교회를 생각하고 쉐마를 통한 교회변화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내 자신이 먼저 쉐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분위기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상처받은 심령들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가운데, 첫째, 상처받은 성도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고 둘째로는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정하고 같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치료받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범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사역자에게 요구 되어지는 필수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며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고 개발하여 Project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①. 설교자로서의 능력 개발

내 자신이 말씀에 더욱 충실해졌다. 처음에는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공부하였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동안 내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말씀에 눈이 열렸다. 시편119편103절,"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계속해서 말씀의 영이 흘러 넘치도록 말씀에 더욱 충실해야 하겠다. 사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설 때, 올바른 길로 성도들을 가이드 할 수 있다. 시편119편 105-106절, "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와 성경공부를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시편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삼고 전력 투구할 것이다.

또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16:9)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 시켜 주시도록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는 사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며, 영성 개발에도 노력하면서 시찰회 안에 설교모임이 참석하고, 목회자 성경 연구원에서 계속하여 설교 멘토를 받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능력이 개발될 것이다.

②. 상담가로서의 능력 개발

성도들의 처한 환경과 심리적인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 환경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돌봄 사역”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본 연구자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성도들의 직업과 관련된 자료들을 살펴보고 성도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보니 이민자로서 성도들의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설교 중에 예화를 들더라도 그들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 진리를 가지고 좀 더 쉽게 다가가게 되었다. 실제생활 속에서도 성도들과 삶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도들과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성도들을 목사로서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동역자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계속해서 한 손에 성경, 다른 손에 신문을 들고 인터넷을 사용하여 세상과 사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려고 한다.

그들의 삶을 배우려고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경제, 역사, 스포츠, 문학, 비즈니스, 여행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통하여 삶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화의 능력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상담학과 Pastoral Care Program코스를 이수하고, 성도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한다.

③. 소그룹 지도 능력 개발

거의 2천년간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으로 만났었다 .예수께서는 12명의 소그룹을 조직하셨다. 초대 성도들은 기쁘고 신실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 식사하고 각 가정에서 떡을 나누었다. 재침례파, 감리교, 오순절운동은 작은 그룹에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소그룹에 새로운 관심을 다시 갖기 시작하였다. 5명에서 12명의 그룹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였다. 그들이 나누고 같이 기도할 때, 사귐의 새로운 자질을 발견하였다. 갱신과 성장이 일어나는 곳마다, 소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사람들은 소그룹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주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은 더하셨다. (행전2:47) 왜 그러한가?
깊고, 보살피고, 책임을 지는 관계성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의 가족에 삶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성경은 이러한 가족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른다. 이와 같은 가족을 발견하는 일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것을 팔아버릴 만한 보물인 것이다.

초대교회는 소수의 인원에서 3천명, 5천명, 그 이상으로 부흥하는 데 짧은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재 침례 운동은 2년만에 소그룹에서 2천명으로, 10년만에 1만2천명으로, 100년만에 16만 명으로 증가되었다. 18세기의 요한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운동은 불과 10명으로 시작하여 1200만 명으로 증가하는 될 때까지 수천명 씩을 매혹시켰다. 금세기의 핍박 속에 있던 중국의 그리스도 인들은 가정 그룹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돌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을 좋아하였고 그들과 합류하였으며 결과로 교회가 400만 명에서 1500만 명으로 심지어는 40년만에 3000만 명으로까지 증가되었다.

교회를 위한 나의 비젼은 무엇인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가?
보살핌을 위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살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소그룹이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데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존 말리슨(John Mallison)에 의하면 “교회의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할 다른 환경조건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 그렇게 충격을 줄 수 있는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배경은 없다.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로서, 가정 안에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 고 하였다.

보살핌을 위한 부르심은 가르침과 배움을 뛰어넘어, 보살핌과 화해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로 움직이는 회중들을 위한 비젼을 가지고 있다.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교회 안의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평신도 목회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Fuller의 칼 F 죠지는, "담임목사에 의하여 적절히 지도되고 감독된다면,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소그룹을 신실하게 사역할 것이며, 선출된 직분보다도 그와 같은 사역을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

소그룹은 사람 중심의 모임이다. 그들은 사람을 돌본다. 그들은 성경, 기도, 기독교

적인 믿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 이번 연구를 하면서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소그룹과 리더"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다. 집중해서 리더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본 연구자는 계속해서 소그룹 지도 능력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미나 미팅을 통하여 지도 능력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10. 연구반원(Sight Team Evaluation)

본 논문의 주제를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 접목하여 적용하는데 구체적인 실례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세미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료들을 모으고 논문이 진행되고록 기여를 하였다.

성명	성별	연령	교회직분	전문분야
이 광 모	남	67	장로	행정
박 희 숙	여	66	권사	의료
정 직	남	22	교사	학생
정 의	남	20	교사	학생
문 영 희	여	53	사모	성경공부

연구반원들은 20여년 이상 계속되어온 교회 침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말씀 교육의 부대에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였다. 그리하여 쉐마를 통한 성도들의 교육을 활성화 함으로써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자는 취지아래 쉐마 프로그램을 위하여 교안을 만드는데 많은 idea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쉐마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느낌과 경험들을 서로 나눔으로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였고, 소그룹 리더들이 되어 교인들을 설득하고 적극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격려하여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다.

연구반원이 주방에 들어가 여자 성도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말을 경청하여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손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솔선 수범을 보여 주었다.
그들 스스로 쉐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또는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로 바라보게 되었고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게 되었다.

11. 결론

1) Project 요약

본 연구는 20여년 전부터 점점 약해지며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뉴욕 동부장로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쉐마 프로그램'을 통한 말씀 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연구이다. 그 결과 참가자들의 신앙이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건강하게 성장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논문에서 본 교회의 쉐마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성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새롭게 변한 의식과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고 있는 것을 밝히고자 했다.

건강한 교회는 신학적으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고난에도 참여하며 어둠 속에서 소망을 창조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물질만능주의 목회로 외형적으로 대형화 되어 건물과 일단의 숫자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전통과 관습에 매달려 이대로가 좋다는 식의 교회도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건강한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있는 교회로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는 신앙이 살아 있는 교회이다.

전인치유수양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깨끗해진 마음속에 매일 성경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다. 살았고 운동력있는 말씀의 힘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일하는 경건의 시간(Q.T)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익숙해 감에 따라 비로소 조금씩 신앙인격의 성숙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돌봄의 행위들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 갔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파노라마 세미나,성경통독사경회를 통하여 완전한 헌신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작은 목자들로 변화가 일어 났다. 이들을 통한 소그룹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동부교회 성도들은 신앙 생활을 예배 출석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 전도활동에 참여하는 생각들은 자기와는 거리가 먼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신앙을 심리적 위안을 얻고 도덕적 교훈의 장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쉐마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그 통치를 따르는 백성으로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제 계속해서 이것은 정직한 삶,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이웃의 복지를 생각하는 삶, 감사하는 삶, 창조 질서에 책임을 느끼는 삶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본 프로젝트는 연구자 자신에게 쉐마에 대하여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 오직 성경으로 "의 주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다. 성경으로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에 아쉬웠던 것은 아직까지 본 연구자의 쉐마에 대한 매우 제한된 지식과 경험이었다. 사실 20여 차례 성경통독사경회를 인도하고 30년 가까이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해 오면서도 '쉐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유대인의 쉐마교육에 대해 철저하게 파헤치지 못한 면은 앞으로 계속 연구할 것이다.

유대인은 어떻게 42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는 데 성공했나? 어떻게 지난 25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진 가운데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 대답은

그들의 쉐마 교육에 있었다. 반면 초대교회는 왜 2000년간 살아남지 못했는가? 초대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강림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유대 사마리아와 아시아, 그리고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다시 북유럽으로, 영국으로, 그후에는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간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촛대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는 거의 없다. 예루살렘교회에는 교회가 없다. 안디옥교회,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있었던 터어키에도 역시 교회가 죽어있다. 그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는 일에 실패했다. 한인교회의 형편을살펴보면 교회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70%가 교회를 떠나고, 졸업시에는 90%가 교회를 떠난다.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고국에 있는 교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쉐마 교육은 이러한 문제에 대안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쉐마 프로젝트의 목적이다.

2. 제언

"말씀없는 신앙 생활은 그리스도 없는 복음과 같다." 말씀없이는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바로 말씀을 알아야 한다.

현대의 지식과 정보의 미디어의 발달은 껍데기를 넘어서 본질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을 찾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본질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현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요즘 교회는 위기의 정점에 서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 생명을 그리워하고 있거나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진리와 사랑과 안식에 목말라 있다. 세상이 그만큼 각박해졌고, 변화가 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과 안식을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었었는데, 그간에는 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복음이 교리라고 하는 화석으로 변하여 살아있는 영적인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게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오래 전에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은 말과 논리 보다는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추구해왔다. 이것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전통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날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에 더 뜨거움으로, 때로는 생수와 같은 감동으로 다시 세울 수 있으며,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함께함의 위로와 평안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회가 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래, 그 내용보다도 그 모습을 간직한 종교들에 사람들이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은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시도했던 쉐마를 통한 교회성장에 대한 연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위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가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12. 부록

1. Q.T 세미나

2,내적치유세미나(전인치유수련회)

3. 주간 성경읽기

4. 성경통독사경회

5. 성경의 파노라마

1. Q.T 세미나 강의안

묵상(QT)의 시간

A. 성경 묵상의 정의

성경묵상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다 보면 성경묵상에 대하여 전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묵상은 또 하나의 새로운 성경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의 변화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안에서는 이미 오랫 동안 해왔던 방법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라는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사회였을 때에는 새벽기도회가가능하였습니다. 생활이 좀 자유로왔고, 동리마다 예배당이 가까이 있었기에 새벽기도회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아니 정보화사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교인들이 한 동네에 모여서 군락을 이루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벽기도회에 모든 교인이 참석한다는 것은 불가능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의 신앙성장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 매일 아침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사람은 계속하도록 도와주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각자 집에서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각자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성경읽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무조건 많이 읽는 방법(多讀)을 장려해 왔지만 지금은 효과적으로 성경을 읽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1. 성경묵상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묵상시간이란 하루중 가장 좋은 시간에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즉 매일 살아 계신 인격자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자인 내가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음성)에 기도로 응답하는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 하나님과의 교제는 대체로 두 가지 방면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만남이고, 두번째는 공동체적인 만남이라
고 하겠습니다.

첫째, 개인적인 만남이란, 전체 삶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만남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기본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 교제는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에 앞서,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은 필수적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함 없이 성도의 삶을 살 때 이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느껴왔습니까 ?

두번째, 공동체 속에서의 만남이란 전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특히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공적인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첫번째 것과 두번째 것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잘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올바른 예배와 봉사, 구제와 전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싹트고, 외형주의가 싹트는 것이 아닐까요 ? 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잘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봉사, 구제와 선교등을 무시한다면 또한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無敎會主義, 個人主義로 나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의도는 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2.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까요?

1) **성경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도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성경말씀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가리켜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만 계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도 계시해 주시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즉사한 것(레10:1-2)이라든지,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오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들어와야 되는 것을, 대신 새수레에 실어 오다가 웃사가 즉사한 사건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방법대로 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대상15:1- 2).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계시)을 매일매일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환상이나, 꿈, 예언 등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려는 시도는 이슬람교의 영향에서 온 것입니다.

계시시대의 종결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1:1).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

시를 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충실히 성경을 살필 수 밖에 없습니다.

2) **기도는 인간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기도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요 선물임이 분명하지만, 잘못할 경우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과 항상 병행되어야 하고 말씀을 살핀 후에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억지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다고 모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읽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내 삶에 참고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악세사리 정도로만 취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교제를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묵상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는 말씀을 들었을 경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십시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저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 하고 물으십시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어느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이것을 오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요. 물론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경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묵상시간을 갖는다면 말씀과 기도가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4)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

먼저 성경이 하는 구실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15- 17에서는 첫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통하여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딤후 3:15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있게 하느니라 고 해서 구원이나 성화(거룩해짐)가 성경의 힘으로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그런 지혜를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가장 위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옛적에)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즉 직접 말씀하시기도(대화적으로) 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아담, 아브라함, 요셉 등).

모세 때에 이르러서는 선지자(대언자)를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자 선지자(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써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글로 기록되어 남아있는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구약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예수님의 예 마4:1 - 11, 베드로의 예 행1:16, 벧후 1:20- 21, 바울의 예 행 13:14- 15,딤후3:15- 17, 아볼로의 예 행 18:24,28 등). 또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히1:1-2, 요1:1- 18).

사도시대에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소리로 들려 주시기도 하셨고, 꿈이나 환상으로나 천사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고, 성도들이 성경을 각자 소유하고있지 못했고, 회당에도 성경의 모든 두루마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구약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신 구약 66권으로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산 말씀(living word)으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요 14:16- 17,26;15:26;16:13, 행2:4;4:8,31;6:10;8:26-39;10:44-48;13:2, 고전 2:12- 14,요일 2:27;5:7 등)

그런데 현재도 꿈이나 음성을 통하여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이방종교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미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능아(뇌성마비)나 글을 모르는 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받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으로,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시는 것을 부정하거나 금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신자들 중에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나 인도를 받기보다는 구약시대를 동경하여 직접 음성으로 그때 그때마다 지시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자주 없었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만을 하고 끝내십니다. 그러나 계시가 완성된 신약시대에는 성경만 펼쳐 읽는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성경을 10번 펴서 읽으면 10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성경 가르침과 다른 지체들의 도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주일날만 와서 말

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마치 구약시대의 성도가 가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묵상을 위한 준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아주 즐겁고 기쁜 시간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인간편에서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기를 설레임으로 기다릴 때 먼저 드려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시간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1). 현대인은 다원화된 정보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매우 바쁩니다. 하루 25시간이라도 모자라고, 일주일이 8일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바쁜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항상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부족함을 하소연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쁘고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막1:35). 성경묵상이 잘 안되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시간 확보의 문제입니다. 사실 성경묵상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없거나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2)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입니다.

(3) 가능하다면, 묵상의 시간을 나름대로 알맞게 정하십시오.

2). 묵상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장소라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을 선택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성경본문과 교재를 결정하십시오.

(1).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선택하십시오.

(2). 좋은 묵상교재를 선택하십시오.

4). 아침에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B. 성경 묵상 의 실제

1. 성경과 노트를 준비하십시오.

2. 먼저 기도하십시오

1).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하십시오

2). 말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3).주님 안에서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4).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3.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시면서 본문의 대의를 찾으십시오

1).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 좀 오래하신 분의 경우는 思想的인 대의를 적으셔도 됩니다

3). 처음부터 성경연구를 하려는 자세로 덤비지 마십시오.

4.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지를 찾으십시오

1). 왜 하나님을 찾고 적용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묵상의 시간을 단순한 교훈 몇 개나 찾고 생활에 적용하기 위하여 간단히 가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위인전기나 소설의 수준으로 격하시킬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지를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1).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집행하시는 구속사역을 마음껏 묵상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2).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묵상하십시오.

(3).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실제의 삶속에서 하나님을 체험(경험)하십시오

(4).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분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십시오

2).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1). **성경을 처음 묵상하거나 初信者들일 경우**, 부담을 갖지 마시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에 말만 약간 바꾸어 찾으시면 됩니다.마태복음 1장 18 - 25절까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18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위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지를 찾아 봅시다.

18절 :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예수님

21절 : 자기 백성(우리)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또는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찾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다르게 또 더 많이 을 수도 있지만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쉽게 두 곳만 찾았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묵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2). **조금 오래 묵상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어려운 분은 위의 방법으로 하십시오). 원래 성경은 문맥을 통하여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18절 : 구약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야를 드디어 주신 하나님
18,20절 :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초자연적으로 오신 분임을 계시하신 하나님
21절 : 천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

(3). **주의할 사**항은 억지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자연스럽게 문맥에 맞추어 찾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따라 어떤 곳은 쉽게 발견되기도 하지만 어떤 곳은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억지로 찾지는 마십시오.

(4). **성경본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찾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조금 숙달되면 간접적인 표현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하나님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1). 하나님에 대해서 찾은 후 내게 주시는 교훈 식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합시다

(2). 구체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시다

5.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으십시오.

1). 적용의 원리들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을 때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고 적용하는 것과 내게 주시는 교훈 찾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하나님 찾는 것과 교훈 찾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은 이원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즉, 도덕론적으로 빠지는 적용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이해가 안되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즈음 구속사적인 해석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경우 성경의 윤리적(모범적, 모형적) 적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속사적 해석과 적용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윤리적 적용을 배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적용도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문맥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윤리적으로 적용한 예는 성경에도 수없이 많습니다(약5:11,17; 고전 10:11; 히11장 13:1-2). 로마서 15:4에서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함이라고 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16에서도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제 2 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화란의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성경해석운동인데 이는 칼 바르트 신학의 주관주의에 대한 반기로 일어났습니다.
칼 바르트의 신학은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는데, 바르트의 신학은 성경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주관적인 면(실존주의는 나와 관계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만 너무 강조하여 왔습니다. 성경의 객관적인 해석을 강조하여 일어난 운동이 구속사 신학입니다. 구속사만 강조하다 보면은 성경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사적 해석의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예가 고재수 교수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 클라우니(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前교장)저 설교와 성경신학 을 읽어보십시오(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pp.95- 104). 따라서 다음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셔야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에 대한 동기가 분명한 적용이어야 합니다.

요즈음의 성경신학자들은 성경의 윤리는 하나님에게 그 동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윤리적 요구를 할 때, 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먼저 우리들에게 공개합니다.

첫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역사를 통해 계시한 후에 우리들에게 윤리적 요구를 하실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윤리를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집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사역이 전제되고 난 후에 십계명을 비롯한 기타의 율법을 요구하십니다. 출20: 1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먼저 애굽땅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천국백성들을 모으시고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시고(마4:17-) 천국백성을 부르신 후에(마5:1- 12), 그들에게 삶의 윤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을 묵상하는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두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나 구속행동을 길게 설명한 후에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바울서신 중에서 특히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이런 형식을 취합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죄인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를 길게 설명한 후에 12장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구속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

는가를 설명한 후에(1-3장), 4장부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공동체가 해야 할 일과 윤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4-6). 성경전체는 바로 이러한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번째 경우는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계시한 후에 그에 대한 삶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구약의 경우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11:45) 고 말씀하십니다.즉,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하면 그의 백성들은 그분의 거룩을 본받아 거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도 삶의 윤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5:4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산상보훈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기억한다면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신 후 서로 섬김의 교훈을 주신 사건이라든지(요13:1- 15), 손수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 오라고 말씀하시고(마16:21, 24,25),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성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도 사랑을 요구하십니다(마18:21-35). 다음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찾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찾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좀 더 넓은 문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교훈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 적용의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찾고 적용할 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출세가 목적이 되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이 비록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 나의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한다면 비록 좋은 윤리적인 삶이 나타났다 할찌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좀더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회는 너무 혼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회를 개조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성경적인 윤리관이라 할 수는없습니다.

셋째,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율법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물론 경건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종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할 때는 소극적인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넷째, 적용의 희열을 느끼기 위한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거기에서 기쁨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고 난 후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는 심리가 작용한다면 잘못입니다. 행위보상 심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교훈을 찾고 적용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2)우리의 적용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엡2장 10절에서는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딤후3장17절에서는 온전한 사람 과 온전한 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적용은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서 요구하실까요?

롬8:29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골3:10; 엡4:24). 그러나 이 형상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계속 회복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

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빌3:21, 고전15:49). 따라서 우리의 적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뉘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도록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골3:12- 14절 참조).

2). 어떻게 교훈을 찾을까요?

(1). 교훈을 찾을 때, 명령과 약속, 할 일, 본받을 점, 책망, 경고, 피할 죄 등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첫째, 교훈을 찾을 때는 관찰된 내용을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해석한 결과를 적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적용이란 해석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은 굳이 적지 않더라도 머릿 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된 것을 교훈 란에 적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저자가 본래 의도했던 주된 교훈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많은 교훈들을 찾다가 보면 어느 것이 주 교훈인지, 보조 교훈인지 구별이 안갈 때가 있습니다.

3). 어떻게 교훈을 적용할까요?

(1). 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여 진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적용입니다.

(2). 감정의 변화도 적용입니다.

(3). 그러나 적용의 생명은 실제의 삶에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첫째로, 실천의 소극적인 면은 말씀에 자신을 비춰 보면서 회개하고 고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범했는지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자백하면서 바르게 살겠다고 각오합니다.

둘째로, 실천의 적극적인 면은 적용한 것을 행동화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4). 다음과 같은 원리를 도입하여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용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적용의 대상은 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 일차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시간적으로 현재에 적용하십시오.

셋째로,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넷째로, 가능하도록 적용하십시오.

다섯째로, 생활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여섯째로, 특별한 하나님의 지시에 귀를 잘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5). 문맥과 잘 연결해서 적용의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쉽습니다.

6. 일반적인 적용의 원리들

1).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한절씩 한절씩 읽으면서 적용하십시오.
2). 먼저 나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3). 그리고 나서 공동체에도 적용해야 합니다.
4). 가급적 현재의 상황에 적용하십시오.
5). 원리나 교훈으로만 받지 말고 오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구체적 – 세부적, 실제적으로 할 것) – 6하원칙
6). 가능한 것만 적용하라.
7). 같은 본문이라도 인간 성장(나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 감에 따라 적용이 다릅니다.
9). 본인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성경묵상 적용에서 주의할 점

1). 주관적인 적용을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성경해석은 다분히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적용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계속하면서 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2). 문맥을 잘 살펴서 올바른 교훈을 찾도록 노력하십시오(마 7:13). 그러나 이 부분은 하루 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묵상을 계속하다보면 이 부분은 잘 훈련 될 것입니다.

3). 적용할 때 나의 부족한 것만 계속 드러나면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의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은혜(복음적)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4). 잘못 깨닫거나 혹은 잘못 적용한 경우,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다시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적용하도록 해 주 실것입니다.

성령님, 교회의 가르침(지도자의 설교), 다른 지체와 나눔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5). 본문에서 근본원리를 찾고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6). 너무 이상주의적으로 애매 모호하게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 실제적으로 적용하십시오.

7).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인간적인 교훈으로 이끌어 오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앞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 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8). 성경공부처럼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C. 기 도

1. 교제로서의 기도

성경묵상의 시간에서 기도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2대 요소중 하나입니다.

1).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찾으면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말씀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3). 말씀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 적용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가 깊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4). 적용된 말씀을 잘 실천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실천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5).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개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잡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기도하다가 엉뚱한 잡념에 쌓여서 한참 딴짓하다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읽고 또 잡념에 빠지고 하는 것은 지금 임재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대단한 실례입니다. 기도하실 때는 소리를 내어서 조용히 하십시오.

2. 실천보다 광범위한 기도

적용의 실천은 항상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하십시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는 말씀을 읽고 적용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투신하거나, 아니면 선교사를 돕거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적용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광범위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기도카드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지도를 내어 놓고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한국교회가 선교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핍박받는 북한과 중

공, 회교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한 부분만 간단히 기도할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3. 중보기도 카드 만들기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문맥을 살펴보면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 묵상을 마치고 기도할 경우

성경묵상을 할 때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듬뿍 주셔서 대개 오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는 기도는 기도 같지가 않고 길게 기도해야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럴 경우는 기존 습관대로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할 것을 찾아서 그 다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조심하셔야 할 일은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욕심대로 기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라 고 했는데, 내 기도 제목에는 아파트 구입 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는, 빨리 포기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묵상이 끝난 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복음을 위해 고난을 잘 받게 해달라 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묵상을 계속하심에 따라 대화식 기도로 바꾸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5. 특별기도

성경에 보면 특별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 신약에는 그 例가 많지 않습니다.

1).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을 때, 특별기도가 필요합니다.

2).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모아서 기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경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제목이 무척 많

습니다. 묵상시간에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럴 경우 기도제목들을 모아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D. 묵 상 나 눔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시에 나누도록 합니다. 이때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E. 성경묵상이 잘 안될 때

성경묵상을 오래 지속해 온 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경묵상이 잘 안되거나 적용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1) 성경묵상이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 지를 잘 모를 때
2) 자녀들이 방학을 하여 집에 있을 때
3) 집을 이사하려고 할 때 (이사 직후에)
4) 집에 손님이 방문했을 때
5) 집안에 대소사(장례, 결혼, 생일 등)가 있을 때
6) 집을 떠나 오랫동안 여행할 때
7) 엘리야처럼 몸이 몹시 지쳐 있을 때
8) 마음에 여유가 없이 일에 쫓길 때
9) QT-Sharing모임에 몇 주간 계속 빠졌을 때
10) 집안이나 마음이 너무 평안할 때
11) 어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있을 때
12) 읽을 말씀이 아주(레위기, 요한계시록, 선지서중 하나 등)어려운 본문일 때
13) 말씀을 적용 하려고 하기보다 이해하는 쪽에 더 치중할 때 즉 지식을 채우려는 욕심이 있을 때 등입니다.

F. 성경묵상을 돕는 자료들

1. 이론정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1) 묵상의 시간 (성서유니온)

2) 성경묵상과 우리의 구원 (모리아)

3) 나의 주 나의 하나님 (IVP)

4) 조용한 시간 (생명의 말씀사)

5) 묵상의 시간 강의 TAPE (윤종하)

6) 맥 시리즈 (전 20권)

2. 실제적인 자료들

1) 매일성경 (cf. 본문수록)

2) 매일성경 첫걸음 - 마태복음, 사도행전 - 1권이 60 일분임.

3) 등잔불 (중학생용)

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취학전 아동용)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은 크셔요

도와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구들

5) 배워요 씨리즈 - 전 6권

하나님을 배워요

예수님을 배워요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요

성경 위인들을 배워요

믿는 사람들을 배워요

하나님의 친구들을 배워요

6) 징검다리 (국교 1-3학년용 12권으로 된 1년분)

7) 출발, 보라, 들어라 씨리즈 (국교 4-6학년용 12권으로 3년용)

8) 기타 - 이 외에도 『생명의 삶』,『날마다 주님과 함께』등 각 출판사에서 발행한 자료가 10 여종 정도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2. 내적치유세미나(전인치유수련회)-설문지

본 설문지는 한국교회개발원에서 발행된 내용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도우십시오(닐 앤더슨, 생명의말씀사)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 개인의 인적 사항

● 성별 : ____

●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이( )세

●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이 당신을 키웠습니까?

● 최종학력:

● 현재의 직업은:

● 당신의 형제 관계는?(남매 중 째)

● 가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형, 누나, 언니, 여동생, 남동생 등)

2. 부모와의 관계

● 당신 부모의 현재 결혼 생활은? 생존 혹은 사망 여부는? 의붓아버지/어머니 혹은 양자 여부는?

● 당신의 부모와의 관계는 ? 좋았다 나빴다 잘 모르겠다(O표 하세요)

1) 당신 아버지와의 특별한 문제는?

2) 당신 어머니와의 특별한 문제는?

3) 당신 형제/자매들과의 특별한 문제는?

● 당신의 출생에 관해서

1) 당신은 계획적으로 출산된 자녀입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2) 부모가 원했던 “성(sex)”으로 태어난 자녀입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3) 부모가 결혼 전에 당신을 임신했습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4) 당신은 입양된 자녀입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5) 모유로 성장한 자녀입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6) 만약 입양되었다면, 당신의 친부모에 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7) 어머니가 당신을 임신 중 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 2 -

8) 어머니가 당신을 출산할 때 어렵거나 복잡한 과정으로 거쳤습니까?

9) 당신은 정상분만으로 태어난 자녀입니까? 네/아니오/잘 모르겠다

● 당신이 12살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평화 및 안정이 있었습니까?

● 가정에서 부모가 당신에게 어떻게 애정을 표시했습니까?

● 당신 부모나 조상 중에서 사교 및 다른 종교에서 심취한 것이 있었습니까?

● 당신 부모는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3. 가족의 건강 상태

● 가족 중 어떤 중독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술, 마약, 도박 등)

● 정신 및 감정에 이상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간질로 발작증세를 보인 환자는?

가족 일원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습니까?

4. 도덕적 성향

● 18세가 될 때까지의 다음 영역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방관 허용 보통 엄함 아주 엄함

복장 5 4 3 2 1

성 5 4 3 2 1

연애 5 4 3 2 1

영화 5 4 3 2 1

음악 5 4 3 2 1

구독서적 5 4 3 2 1

자유의지 5 4 3 2 1

음주 5 4 3 2 1

흡연 5 4 3 2 1

교회 출석 5 4 3 2 1

5. 개인 건강 상태

● 당신의 건강 상태는? 최상/양호/보통/쇠약/불량

● 현재 및 과거의 병력, 사고 및 신체장애는?

● 현재 약을 복용하고 계십니까? 네/아니오 어떤 약?

- 3 -

● 의학적인 목적 외에 복용하는 약이 있습니까? 네 /아니오 어떤 약?

● 당신은 심리치료 혹은 기도 및 상담사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있다면 어떤 종류?

● 치료의 결과는?

● 당신의 현 상태를 아래에서 선택한다면?(해당사항에 0표 하세요)

적극적 양심적 자신감 지속적 초초한 열심히 일하는

성급한 충동적 변덕스러운 우울한 흥분을 잘하는 상상적인

차분한 심각한 만사태평 수줍은 호인 자아의식적

의성적 지도자 조용한 냉정한 복종적 호감이 가는

고독한 민감한 내성적

6. 정신/심리 상태

● 심리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거나 당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현재 및 과거에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해당사항에 0표 하세요)

열등감 공상 정욕

강박관념 충동 걱정

의심 현기증 두통

현란한 생각

● 당신은 최면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정신적으로 혼동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정신 착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백일몽(Walking Dream)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자주 악몽으로 괴롭힘을 당합니까? 네/아니오

● 당신을 잠을 이루지 못해 괴롭힘을 당합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잠잘 때 가위눌린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자살하려는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자살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4 -

●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다른 때 혹은 다른 장소에 살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낙천적입니까 아니면 염세적입니까?

사건: 염세적 5 4 3 2 1 낙천적

(어떤 일이 잘/잘못될 것으로 여기는 성향)

사람: 염세적 5 4 3 2 1 낙천적

(어떤 일이 잘/잘못될 것으로 여기는 성향)

● 당신은 갑자기 실신 상태에 빠질까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있다면 언제?

● 주로 읽는 서적은 어떤 유형의 책입니까?

● 얼마나 자주 음악을 듣습니까?

어떤 종류의 음악?

● 아래의 감정 중 당신이 자주 느끼는 것은?(해당사항에 0표 하세요)

불안정 공포 죄책감 분노 무가치성

고독 좌절 증오 쓴뿌리 반항

● 위의 감정 중 어느 것을 죄로 느끼십니까?

●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당신은 다음 중 어떤 것 혹은 장소에서 공포를 느끼십니까?

실패 부적응 어색함 상관 어둠 죽음

강간 폭력 홀로있음 미래 여자 사람과귀신들

사고 노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혹은사고 패쇄된 장소

고질병 이혼 곤충 개 거미 물

뱀 고통 고음비행중 식품가게 정신착란 대중연설

● 당신은 좋고(기쁜) 나쁜(슬픈)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해당사항에 V표 하세요)

_____즉각적으로 모든 감정을 표시한다.

_____어떤 감정을 표시하되 모든 감정을 다 표시하지 않는다.

_____감정을 인식하거나 별로 감정을 표시하지 않는다.

_____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다.

_____감정 표시를 안 하는 것이 훨씬 마음에 편하다.

_____내 감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_____어떤 감정은 처리하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부정한다.

- 5 -

● 당신이 자신과 자신의 삶의 문제를 편안한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 당신은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솔직하십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감금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왜?---

●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태도는?

1)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2) 분노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3)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7. 성에 대한 사항

● 당신은 음란한 (정욕적인) 생각이 자주 일어납니까? 네/아니오

● 당신의 부모나 조상이 어떤 외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자위행위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 얼마나 자주? 빠진 이유는?

● 당신은 어렸을 때 강간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아니오

1) 가족에 의해?

2) 가족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

● 당신은 남을 강간한 적이 있습니까? (남자의 경우)

● 당신은 남에게 강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몇 명? 창녀 혹은 다른 사람?

● 당신은 동물과의 성적 교접에 대하여 상상한 적이 있습니까?

● 당신은 음란 서적, 춘화, 음란 Cable TV, 비디오 및 영화, 음란 (나체)쇼 등을 탐닉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빠졌으며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8. 종교적인 배경

●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네/아니오/확실치 않다

●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아니오/확실치 않다

- 6 -

●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네/아니오/확실치 않다

● 당신이 만약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이 위와 같이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아니오/확실치 않다

● 당신은 구원에 대한 의심 때문에 시달림을 받습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전혀 읽지 않는다/가끔/자주 읽는다

●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십니까?

● 기도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까? 네/아니오

● 정규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립니까? 네/아니오

● 당신은 예배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참석 시 음란한/불결한 생각, 질투, 다른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시달리십니까?

● 당신의 종교생활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다른 종교, 사교 혹은 이단, 무술 등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해당사

항에 v표 하십시오)

무술 사교 기타 종교

___ 점 ___ 여호와의 증인 ___ 불교

___ 손금 ___ 몰몬교 ___ 유교

___ 굿 ___ 통일교 ___ 남미호랑교

___ 관상 ___ 기타 ___ 요가

___ 마술 _____________ ___ 회교

___ 점 _____________ ___ 힌두교

___ New Age _____________

● 당신은 심령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거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 7 -

● 당신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을 구했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환청 혹은 마음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당신은 어떤 비정상적인 경험을 체험한 것이 있습니까?

8. 결혼 사항

● 결혼 여부: 기혼/미혼

● 배우자의 나이: 세

● 배우자의 직업:

● 배우자의 학력:

● 결혼날짜

● 결혼할 당시의 자신의 나이 세, 배우자 세

● 별거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이혼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9. 자녀들에 대한 사항

● 현재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현재 자녀들과의 문제는 어떤 것들입니까?

10. 문제 요약

●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문제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 당신은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 효과적인 치유기도 사역을 위해 우리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3. 2008년도 동부교회 가족 수련회

전인적 치유 수양회

일시:2008년 8월30일(토)~9월1일(월)
장소:스토니 포인트 수양관

뉴 욕 동 부 교 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East New York
21-70 Hazen St. East Elmhurst, NY 11370
☎ (718)726-3570

4. 주간 성경공부 문제지-샘플

2009. 1. 4. 뉴욕동부교회 주간 성경공부

마태복음 **이름:**

* 서론

1. 저 자 : 세리마태

2. 기록연대 : 서기 50-70년(초대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흩어진 이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

3. 기록목적 : ①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②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팔레스틴 인을 위하여

③예수를 직접 목격한 복음의 첫 세대가 점차 사라져가는 때 예수의 행적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4. 기록 장소 : 수리아의 안디옥

5. 주 제 : 왕이신 그리스도

6. 대 상 : 유대인 개종자들

7. 배 경 : "메시아 사상"은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700여년을 이어져 내려온 유대인 최고의 대망이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면 바벨론이나 로마제국과 같은 강대국들을 몰아내고 세계 제일의 유대인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8. 특 징 : ①유대인을 위한 복음

②정연한 강해 - 산상 수훈, 천국비유, 종말 설교, ③'교회'에 대한 관심

****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답해주세요...

1.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디까지 거론하고 있는가?

①아담까지 ②노아까지 ③아브라함까지 ④다윗까지

2. 보아스와 다윗 왕은 어떤 관계인가?(1:5-6)

3.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중에 여자가 몇 명 등장하는가? (명)

4.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가?(1:20)

5.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은?(1:23)

6.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3가지 이름이 아닌 것은?

①그리스도 ②예수 ③임마누엘 ④모사

7.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   )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21)

8. “유대 땅 (   )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2:6)

9. 헤롯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구약의 어느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가? (2:17-18)

10. 헤롯의 죽음 이후에, 애굽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돌아와 정착한 마을의 이름은?(2:19-23)

11.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는 이사야가 누구에게 한 예언인가? (3:1-3)

12.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3:7)

13. 요한의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3:8)

①회개 ②성결 ③모세의 말씀에 순종 ④회개에 합당한 열매

14.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는 무엇으로 준다고 마태 복음 3장에서 고백하는가?

15.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   )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3:15)

16.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 하늘이 음성이 들린 것은 어떤 사건 때인가? (3:17)

①겟세마네의 기도 ②십자가에 못 박힐 때 ③부활 승천할 때 ④요단강 가에서 세례 받을 때

17. 예수의 40일 광야 시험 때에 광야로 예수를 이끌어 간 것은 무엇인가?(4:1)

18.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물리치신 말씀을 써 보세요. (4:1-10)

1.

2.

3.

19.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17)

20.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　)가 되게 하리라” (4:19)

21. 산상보훈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①2-3장 ②4-5장 ③5-7장 ④8-9장

22.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　)케 하려 함이로라 (5:17)

23.산상 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가 누구 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5:20)

24. 주기도문이 기록된 장은?

25.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　)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6:16)

26. 마태 복음 6:33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으로 말씀 하신 것은 무엇인가?

27.마태복음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28.신약의 황금률은 어디를 말하는가(7:12)

29. 산상보훈에서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　)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가?(7:21)

30.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

람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　　)위에 지은 자니라” (7:24-25)　 *
수고하셨습니다.....!

제 1회차 정답 풀이 및 해설입니다.

1.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①아담 ②노아 ③아브라함 ④다윗 **답은 ③ 입니다.**

*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의 세계를 소개하고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문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나간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고쳐 보았습니다.

2. 보아스와 다윗 왕은 어떤 관계인가?(1:5-6) **답은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입니다.**

*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는 사실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는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장이 좀 지루하지만 하나 하나 따져 가며 인물을 살펴 보면 무척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3.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중에 여자가 몇 명 등장하는가? (명) **답은 5명입니다.**

①다말 ②라합 ③룻 ④밧세바(우리야의 아내) ⑤마리아

* 예수님의 족보 중에 기록된 여자들은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다 성결한 여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마태는 일부러 자세히 표현해 놓았는데 3절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38:)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라합은 4번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리고 기생이었으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하나님을 경외하여 멸망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수 2:)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룻) 6절에서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은 신하의 여자와 간통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사건으로 충신 우리야를 전쟁에서 죽게한 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삼아 솔로몬을 낳습니다.(삼하 11:-12:) 그리고 잘 아시는 나사렛의 순결한 처녀 마리아.. 마태가 이렇게 자세히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남녀노소 빈부와 귀천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경외하는 사람들, 즉 거룩한 씨의 계보를 통해 태어나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 예수님의 이름은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가?(1:20) **답은 주의 사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나 성령이라고 하신 분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장, 절 수를 기록해 드린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씌어진 대로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을 가진 말은?(1:23)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6.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3가지 이름이 아닌 것은? **답은 ④입니다.**

①그리스도 ②예수 ③임마누엘 ④모사

7.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21)

8.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2:6)

9. 헤롯이 두 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구약의 어느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인가? (2:17-18) **답은 예레미야입니다.**

10. 헤롯의 죽음 이후에, 애굽에서 예수의 가족들이 돌아와 정착한 마을의 이름은?(2:19-23) **답은 나사렛입니다.**

11.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사야가 누구에게 한 예언인가? (3:1-3) **답은 세례요한입니다.**

12.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3:7)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13. 요한의 세례의 조건은 무엇인가? (3:8) **답은 ④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①회개 ②성결 ③모세의 말씀에 순종 ④회개에 합당한 열매

14.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물로 세례를 주나 예수는 무엇으로 준다고 마태 복음 3장에서 고백하는가? **성령과 불입니다.**

15.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3:15)

16.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이 음성이 들린 것은 어떤 사건 때인가? (3:17) **답은 ④입니다**

①겟세마네의 기도 ②십자가에 못 박힐 때 ③부활 승천할 때 ④요단강 가에서 세례 받을 때

17. 예수의 40일 광야 시험 때에 광야로 예수를 이끌어 간 것은 무엇인가?(4:1) **성령**

18.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구약의 신명기를 인용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물리치신 말씀을 써 보세요. (4:1-10)

1.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 덩이가 되게하라 --- 사람이 떡으로 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2.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3. 지극히 높은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9.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4:17)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20.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4:19)

21. 산상보훈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답은 ③입니다**

①2-3장 ②4-5장 ③5-7장 ④8-9장

22.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5:17)

23.산상 보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의가 누구 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십니까? (5:20)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성경이나 교회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남보다 많이 아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잔소리만 많이 하고 있다면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바로 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4. 주기도문이 기록된 장은? **답은 6장입니다**

25.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6:16)

26. 마태 복음 6:33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으로 말씀 하신 것은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기도 할 때에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혹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평안함이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뜻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7.마태복음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된 곳은? **7장 1절입니다.**

28.신약의 황금률은 어디를 말하는가(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29. 산상보훈에서 천국에 들어 갈 수 있는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가?(7:21)

나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을 늘 읽으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심사숙고는 많이 해도 그것이 내 결정은 아닙니까?

30."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위에 지은 자니라" (7:24-25)

'09 1. 11 2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

♣마태복음 8장에서 14장까지입니다. 매일 한 장씩 읽고 답해주세요.

1.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8:5-13)고 예수님께 칭찬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2.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8:29)

3. 9장에서 병 고침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9:2)
①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②야이로의 딸 ③소경 ④문둥병자

4.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9:9)
①의사 ②랍비 ③어부 ④세리

5.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라고 하십니까?(9:15)

6. 예수께서 한 직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쳐 주신 12년 된 병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9:18-22)

7. 예수님의 12 사도의 명단을 써 보세요.(10:2-4)

8.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10:5-6)
①로마로 ②이방인들에게로③사마리아로④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9.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분부하였던 명령이 아닌 것은?(10:7-8)
①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 ②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③귀신을 쫓아내라 ④로마인들에게 항거하라

1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   )이시니라” (10:20)

11.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11:11-14)

12. 세례 요한의 금욕 생활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①선지자다운 행동이다   ②본 받아야한다   ③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
④귀신이 들렸다

13.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1:25)

14.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   )하고 (   )하니 나의 (   )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   )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11:28-30)

15. “ (   )는 안식일의 (   )이니라” (12:8)

16.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선지자는?(12:17-20)

17. 귀신의 왕 이름은? (12:24)

18.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12:11-12)
①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②성전 안에서는 괜찮다 ③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④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야 한다.

1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   )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   )가 이미 너희에게 임 하였느니라” (12:28)

20.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12:31-32)

21.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대답은? (12: 39)
①문둥병 치료 ②요나의 표적   ③회개하라 ④책망

22.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   )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12:50)

23.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 장은 몇 장이며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몇 개인가?

24.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이며 추수 때는 언제인가? 또 추수 군은 누구인가? (13: 39)

25.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에 연상한 인물은 누구인가?(14:2)

26. 세례 요한이 헤롯의 어떤 일을 책망하였는가?(14:3)

①로마의 허수아비였기에 ②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기에

③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기에 ④예수를 죽이려고 했기에

27.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한 날은 언제인가?(14:6-12)

28. 예수께서 오병이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얼마나 남았습니까?(14:20)

29. 예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서움이 생겨서 빠져갔습니까? (14:30)

30. 예수께서 물 위를 걸은 사건 후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은?(14:33)

①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②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③주는 그리스도입니다. ④평안하소서

** 수고하셨습니다.....!! ^^*

제 2회차 정답 풀이 및 해설입니다.

1.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8:5-13)고 예수님께 칭찬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수하에 100명을 거느린 로마군의 장교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비교해 보면 이방인이지만 말씀만으로도 자기의 하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당시에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는 상종도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기생 라합이나 이방여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룻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신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릅니까?(8:29) **하나님의 아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또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교해 봅시다.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역사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해도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귀신이기에 귀신같이 아는 것입니다. 미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3. 9장에서 병 고침을 받기 전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9:2)**답은 ①입니다.** 병만 고쳐주시면 이런 저런 소리 들을 일이 없었겠지만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줄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많이 아프다면 먼저 회개 기도를 해서 죄 사함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십시오.

   ①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②야이로의 딸 ③소경 ④문둥병자

4.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9:9) **답은④입니다.**

   ①의사 ②랍비 ③어부 ④세리

5.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해야 될 때는 언제라고 하십니까?(9:15) **신랑을 빼앗기는 날**

6. 예수께서 한 직원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쳐 주신 12년 된 병자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으며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9:18-22) **혈루증**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

겠다 하는 믿음

7. 예수님의 12 사도의 명단을 써 보세요.(10:2-4) **①베드로 ②안드레 ③야고보 ④요한 ⑤빌립 ⑥바돌로매 ⑦도마 ⑧마태 알패오의 아들 ⑨ 야고보 ⑩다대오 ⑪시몬 ⑫가룟유다**

8. 예수님께서는 12 사도를 어디로 파송하셨습니까?(10:5-6)**답은 ④입니다.**

①로마로 ②이방인들에게로③사마리아로④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9.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분부하였던 명령이 아닌 것은?(10:7-8)

①천국이 가까왔다고 전파 ②병든 자를 고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 **답은 ④입니다.**

③귀신을 쫓아내라 ④로마인들에게 항거하라

1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10:20)

11. 예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말라기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11:11-14) **세례 요한**

12. 세례 요한의 금욕 생활에 대해 당시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답은 ④입니다.**

①선지자다운 행동이다 ②본 받아야한다 ③모든 사람들이 동참했다. ④귀신이 들렸다

13.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11:25)

14.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11:28-30)

15. "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12:8) 주일 날, 일주일에 오직 하루 쉰다고 내 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16.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선지자는?(12:17-20) **이사야**

17. 귀신의 왕 이름은? (12:24) **바알세불**

18.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12:11-12) **답은 ③입니다.**

①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②성전 안에서는 괜찮다 ③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④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야 한다.

19.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 하였느니라” (12:28)

20.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12:31-32) **성령 훼방(거역)죄** 신앙생활하시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을 훼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21.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행한 예수님의 대답은? (12: 39)**답은 ②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사흘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 나온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신 후 사흘만에 다시 살아 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①문둥병 치료 ②요나의 표적 ③회개하라 ④책망

22.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12:50)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아도 아버지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이라면 예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더라고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23.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 장은 몇 장이며 기록된 천국 비유는 몇 개인가? **13장 7개**

①씨뿌리는 사람의 비유 v3-v9 ②가라지의 비유 v24-v30 ③겨자씨의 비유 v31-v32 ④누룩의 비유v33

⑤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v44 ⑥좋은 진주 비유 v45-v46 ⑦그물의 비유 v47-v48

24.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이며 추수 때는 언제인가? 또 추수 군은 누구인가? (13: 39)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군은 천사들

25.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머리에 연상한 인물은 누구인가?(14:2) **세례요한**

26. 세례 요한이 헤롯의 어떤 일을 책망하였는가?(14:3)**답은 ②입니다**

①로마의 허수아비였기에 ②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기에

③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기에 ④예수를 죽이려고 했기에

27. 세례요한이 죽음을 당한 날은 언제인가?(14:6-12) **헤롯의 생일 날**

헤롯이 자기의 생일날 자기 영광에 정신이 팔려 몹시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의붓 딸에게 헛된 맹세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잔치 날 많은 사람 앞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으로 자기 얼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 이런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날이 조심해야할 날입니다. 욥이 자녀의 생일 날 어떻게 했는가 한 번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욥1:4-5) 또 욥1:13에서 욥의 자녀들이 마귀의 궤계에 당한 날 역시 잔치 날이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보십시오. 어떠한 잔치 날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겸손히 지내신다면 마귀가 틈을 탈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없는 잔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28. 예수께서 오병이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 얼마나 남았습니까?(14:20) **열두 바구니**

29. 예수의 말씀에 따라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고 무서움이 생겨서 빠져갔습니까?(14:30) **바람**

30. 예수께서 물 위를 걸은 사건 후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고백은?(14:33) **답은 ①입니다**

①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②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③주는 그리스도입니다. ④평안하소서

** 수고하셨습니다.....!! ^^*

09 3. 8. 10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__

요한복음

*** 서론**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과는 달리 본서는 독특한 관점과 문체로서 예수가 본질상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증거한다. 즉 요한은 예수가 처음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갔음을 말해 주고 있다.

1. 저 자 : 사도 요한 유대 지리에 밝은 것으로 보아 본서의 사건을 목격한 유대 사람인데 21:24은 이 사람으로, 21:20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라고 증거하고 있다.

2. 기록연대 : 서기 약 85-90년. 유세비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공관복음이 완성된 후 AD95년 밧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록목적 : 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②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는 이단을 반박하기 위하여

4. 기록장소 : 에베소

5. 대 상: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

6. 주 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독생자 이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7. 배경: 에베소에서도 영지주의 분파들이 일어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요한은 이에 대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말씀' (로고스)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8. 특징: 단순한 문체 독특한 표현기법 - '나는 ... 이다' , '진실로' 의 반복사용
그리스도의 신성 강조 풍부한 강해 - 대화설교, 해설

9. 내용분해: 1:-12:일곱가지 기적, 13:-17: 다락방에서 일어난 일, 18:-21: 부활

****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다음 중 어디서부터입니까?

①30세 이후 공생애부터 ②베들레헴 탄생 이후부터

③광야의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④육신을 입으시기 이전부터

2. 요한복음 1:1을 써보세요.

3.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4.1:12을 써 보세요.

5. 1:14을 써 보세요

6.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29)

7.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좇아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1:40)

8.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 받은 사람은 누구 입니까?(1:51) ※이 사람은 막 16-19에서는 바돌로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표적은 어느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까?(2:1-11)

10.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2:17)

11. 3:1-21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12.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3:5)

13. 3:16을 외워서 써 보십시오

1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　　　)을 받았습니다.(3:18)

15. (　　　)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　　　)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3:21)

16.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3:23-30)

17.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　　)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3:34)

18.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4:4-26)

19. 하나님은 (　　)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　　　)과 (　　　)으로 예배할찌니라(4:24)

20.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4:34)

21.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 째 표적은 무엇입니까?(4:46-54)

22. 베데스다 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는 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5:14)

①부상을 입어서　②유전으로　③죄를 지어서　④자기관리를 게을리 해서

23. 너희가 (　　　)에서 (　　　)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　　　)하는 것이로다.(5:39)

24.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시험코자 하신 일이었습니까?(6:6)

25.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6:28-29)

26. 내 살은 참된 (　　　)이요. 내 피는 참된 (　　　)료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은 (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6:55,59)

27.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7:7)

28. 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것입니까?(7:16)

29. 7:37-38을 써 보세요.

30.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7:39)

*　*수고하셨습니다.....!! ^^*

제 10회차 정답 풀이 및 해설입니다

♣ *요한복음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은 다음 중 어디서부터입니까? **답은 ④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30세 이후 공생애부터 ②베들레헴 탄생 이후부터

③광야의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④육신을 입으시기 이전부터

2. 요한복음 1:1을 써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가리키므로 예수님입니다. 3절에서는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인간적인 두뇌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3. 세례 요한은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1:7 빛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1:12을 써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5. 1:14을 써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6.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1:29)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용서 받으려면 흠없는 양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서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그 사람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그 양은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태우고 그 피는 뿌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볼 때 틀림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7.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좇아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1:40) **안드레**

8.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 받은 사람은누구입니까?(1:47) ※이 사람은 막 16-19에서는 바돌로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 1:47입니다. 잘못 표기되어 죄송합니다

9.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처음 표적은 어느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까?(2:1-11) **갈릴리 가나**

10.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구약의 어떤 말씀을 기억했습니까?(2:17)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1. 3:1-21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공회(Sanhidrin) 의원으로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크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보고 확신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찾아 갑니다. 동료 공회 의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밤을 택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즉, 거듭나는 방법, 속죄의 도리, 구원의 도리를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삶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것을 즉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와 같은 초보적인 것도 모르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니고데모가 구원 받았다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 도움을 주었다는 것과(요7:50-52)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도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요19:39)

12.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3:5)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

세례를 통해 죄를 씻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세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육신의 삶은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와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축복을 얻습니다. 나는 새사람입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다 죽지 않아서 성령께서 내안에서 온전히 행동하시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13. 3:16을 외워서 써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3:18) 혹시 우리 가족이나 친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속히 이 심판을 면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15.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3:21)

16.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3:23-30) **세례 요한**

17.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34)

18.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4:4-26) **사마리아 수가성**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입니다.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쪽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손에 붙여 망하게 하십니다.(BC721) 그후 정복자 앗수르는 사마리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나라의 백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 수가 성을 통과하십니다. 이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찾아 가시는 사랑' 을 볼 수 있습니다.

19.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4:24)

20.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4:34)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21. 갈릴리로 오신 후 두 번 째 표적은 무엇입니까?(4:46-54) **가버나움에서 병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

22. 베데스다 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는 왜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5:14) **답은 ③입니다**

병을 앓는 이유는 보통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2.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해서 앓게 된 병 3. 죄를 지어서 얻게 된 병이 그것입니다.

①부상을 입어서 ②유전으로 ③죄를 지어서 ④자기관리를 게을리 해서

23.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5:39)

24. 오병이어 사건은 누구를 시험코자 하신 일이었습니까?(6:6) **빌립**

25.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6:28-29)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26.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가르치신 말씀은 (**가버나움**)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6:55,59)

27.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7:7)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셔서**

28.예수님의 교훈은 누구의 것입니까?(7:16)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29. 7:37-38을 써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0.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7:39)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 하심

09 8. 2.   30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____

<u>데살로니가 전서</u>

*** 서론:** 이 책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 보낸 첫 번째 편지인데, 이는 바울이 교회에 쓴 13개의 편지들 중 가장 초기의 것이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들을 기억할 것을 권면했고, 또한 당시 교회의 관심사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문제를 다룸으로써 교회를 위로했다.

1. 저자: 바울

2. 기록 연대: A.D. 50-52년경. 사도행전 16-17장과 본서 2:2, 3:1, 6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2차 전도 여행 중(A.D. 50-52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록 목적: ①시련 받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3:3-5) ②성결한 생활을 교훈하기 위하여(4:1-8)

③성실한 삶을 교훈하기 위하여(4:11-12) ④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의 장래를 밝히기 위하여(4:13-15)

4.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을 전후한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묘사된 본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망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라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성결 생활을 영위해야 함을 강조한다.

5. 배경: 당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나 개종자의 대부분은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바울이 떠나자 곧 그 가르침을 곡해하고 재림과 성결한 삶을 잘못 이해하여 혼란에 빠졌다.

6. 특징: ①재림의 서신-재림에 대한 초대 교인들이 의문을 풀어 주기 위해 쓰여졌으므로 종말론적 교훈과 묵시 문학적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②성결의 서신-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근신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
*

♣ *데살로니가 저서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1:1)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1:3)

3.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　　　　)과 (　　　　)과 (　　　　　)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1:5)

4.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 가운데서 (　　　　　　　)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　　　　)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　　　　　　)와 (　　　　) 모든 믿는 자의 (　　)이 되었는지라 (1:6-7)

5.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6. 2:2로 보아 데살로니가에 들어 가기 전에 바울이 전도하며 고난과 능욕을 받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7.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까?(2:7)

8. 바울이 이같이 이들을 사랑하여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즐겨 주기를 힘썼다고 합니까?(2:8)

9.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2:13)

10. 바울이 설명하는 유대인들의 특징 중 틀린 것은?(2:15-16)

①주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②바울 일행을 쫓아 내었다.

③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했다.　④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11.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2:19-20)

12.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3:2)

13. 왜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3:2-5) 세 가지로 말 해 보세요.

2절:

3절:

5절:

14. 3:13을 써 보세요.

15. 4:1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6. 4:3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로 된 한 단어만 써 보세요. ※ 참고 4:7

17. 아내를 취할 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4:4)

18.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해서 더 쓸 것이 없을 정도였던 것은 무엇입니까?(4:9)

19.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4:11)

20. 왜 이것을 명했습니까?(4:12)

21.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예수 믿고 죽은 자들)때문에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4:13-14)

22.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써 보세요. (5:16-17)

23.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5:1-2)

24.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5:4-8)

25. 5:10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6.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

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5;12-13)

27. 교회에서 권면해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십니까?(5:14)

①규모 없는 자들을: ②마음이 약한 자들을:

③힘이 없는 자들을: ④모든 사람을 대하여:

28.5:16-22까지 써 보세요.

29.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5:23)

30.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느낀 점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문을 짧게 써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 *제 30회 정답풀이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1.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입니까?(1:1) **실루아노와 디모데**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까?(1:3)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들** 나는 주위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3.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1:5)

4.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1:6-7)

5.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1:10**

6. 2:2로 보아,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전도하며 고난과 능욕을 받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

바울은 빌립보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데살로니가로 와 복음을 증거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7.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양육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합니까?(2:7)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8. 바울이 이같이 이들을 사랑하여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즐겨 주기를 힘썼다고 합니까?(2:8)

자기 목숨

9. 바울이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았습니까?(2:13) **하나님의 말씀**

10. 바울이 설명하는 유대인들의 특징 중 틀린 것은?(2:15-16) **답은 ③입니다**

①주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②바울 일행을 좇아 내었다.

③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을 기뻐했다. ④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11. 바울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에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라고 합니까?(2:19-20) **너희 즉 데살로니가 교인**

말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방인인 우리 역시 바울 사도의 이방인 전도로 시작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바울 사도의 면륙관이 될 것입니다.

12. 바울 일행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3:2) **디모데**

13. 왜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3:2-5) 세 가지로 말 해 보세요.

2절: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5절: **너희 믿음을 알아 보기 위함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

14. 3:13을 써 보세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 4:1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바울 사도에게 배운대로 더욱 많이 힘쓰라

16. 4:3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 글자로 된 한 단어만 써 보세요. ※ 참고 4:7 **거룩함**

17. 아내를 취할 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4:4) **거룩함과 존귀함**

18.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해서 더 쓸 것이 없을 정도였던 것은 무엇입니까?(4:9) **형제 사랑, 서로 사랑**

19.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한 것은 무엇입니까?(4:11)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20. 왜 이것을 명했습니까?(4:12)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21.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예수 믿고 죽은 자들)때문에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4:13-14)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22.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써 보세요. (5:16-1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휴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23.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5:1-2)

아무도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서 도적같이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4.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5:4-8)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은 밤에 아무도 모를 때에 들어 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근신하는 것이 낮에 속하여 영적으로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등에 기름을 채워 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것 역시 자지 않고 근신하여 깨어 있는 것입니다.

25. 5:10에서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

26.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5;12-13)

그들의 수고를 알아 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라

27. 교회에서 권면해야 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하라고 하십니까?(5:14)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①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②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③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④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28.5:16-22까지 써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헤아려 좋은 것

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29.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5:23)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30.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느낀 점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문을 짧게 써보세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시한번 배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점과 흠이 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 갈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 나가면서 삶 속에서 성결함을 지켜서 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씨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 수고하셨습니다.....!! ^^*

09 11. 1. 43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____

♣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일곱 재앙은 무엇입니까?(15:1,7)
2.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 까?(15:2)

3.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 ) 참되시 도다. 주여 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 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15:3-4)

4. 또 내가 들으니 ( )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을 ( )에 쏟으라 하더라 (16:1)
5. 16:15을 써 보세요.

6. 일곱 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요약해서 써 보세요.(16:13-14, 16 여섯 째 재앙 후에 일어 난 일들)

7. ①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17:1)
   ②음녀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17:3-4)

8. ①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입니까?(17:5)
   ②음녀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17:6)

9.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는데 여기서 '저희' 는 누구를 말합니까?(17:12-13)

10. 이 음녀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17:16-17)

11. 18장에서 무너진 성은 어느 성입니까?

12. 바벨론 성이 무너진 3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18:3)

13. 바벨론이 망한 것은 누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18:20)

14. 19:9에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5. 19:11에서 ①백마 탄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②그는 어떻게 싸웁니까?

16.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19:20)

17.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 온 천사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2-3)

18. ①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4)

②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20:5-6)

19. ①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간 놓여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8-9)

② 이 마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20:10)

20.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데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20:12)

21. 누구든지 ( )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 )에 던지우더라.(20:15)

22. 21:2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23.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

시 있지 않다고 했는 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1:3-4)

24. 나는 ( )와 ( )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 )로 목마른 나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 )이 되리라.(20:6-7)

25.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21:8)

26.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주시겠다고 말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21:9-11)

27. ①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성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21:22)
②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21:23)
③예루살렘 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21:27)

28. 22:7을 써 보세요.

29. 성 밖에 있게 될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22:15)

30. 22:11을 써 보세요.

※ 받으신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문을 써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 제 43회 정답 풀이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1.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는 일곱 재앙은 무엇입니까?(15:1,7) **일곱 대접 재앙**

2.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15:2)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3.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 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15:3-4)

4.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6:1)

5. 16:15을 써 보세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6. 일곱 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일을 요약해서 써 보세요.(16:13-14, 16 여섯 째 재앙 후에 일어 난 일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임금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아 전쟁을 예비함

7. ①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17:1)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

②음녀의 모습을 설명해 보세요.(17:3-4)

이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8. ①음녀의 이마에 기록된 이름은 무엇입니까?(17:5)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②음녀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17:6)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이 피에 취해 있습니다.**

9.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했는데 여기서 '저희' 는 누구를 말합니까?(17:12-13)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열 왕

10. 이 음녀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17:16-17)

열 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11. 18장에서 무너진 성은 어느 성입니까? **바벨론 성**

12. 바벨론 성이 무너진 3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18:3)

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②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기 때문

③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기 때문입니다.

13. 바벨론이 망한 것은 누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신 것입니까?(18:20)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14. 19:9에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15. 19:11에서 ①백마 탄 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

②그는 어떻게 싸웁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움**

16.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19:20)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게 됩니다.**

17.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 온 천사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2-3)

용(옛 뱀, 마귀, 사단)을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함

18. ①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4)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합니다

②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20:5-6) **첫 째 부활**

19. ①천 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잠간 놓여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20:8-9)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게서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쌉니다.

② 이 마귀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20:10)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집니다.**

20.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데 이 책은 무슨 책입니까?(20:12) **생명책**

21. 누구든지 (**생명책**   )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20:15)

22. 21:2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

23.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1:3-4)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4.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나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20:6-7)

25.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21:8)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 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

26.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 주시겠다고 말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21:9-11) **예루살렘 성**

27. ①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성전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21:22) **주 하나님과 어린 양**

②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빛이 필요 없었는데 왜 그렇습니까?(21:23)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기 때문

③예루살렘 성에 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21:27)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28. 22:7을 써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9. 성 밖에 있게 될 사람들은 누구 입니까?(22: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 내는 자

30. 22:11을 써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 받으신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문을 써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심판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나이다. 말세를 사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며 어린양의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여 기름을 예비하고 등불을 켜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옵시고 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불의를 계속 행하고 더럽게 살아가겠지만 저희들은 거룩하여 늘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신약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0. 2. 14. 50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____*

♣ *창세기 44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1.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44:1-2)

2.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따라 미쳐 도둑의 누명을 씌웠을 때 형들이 말한 것 중 9절을 써 보세요.

3. 요셉의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까?(44:12)
4. 유다는 자기들의 죄악을 적발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44:16)
5.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누구입니까?(44:17-34)
6.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은 몇 장입니까?
7.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무슨 말을 합니까?(45:5)

8. 요셉은 자기가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45:7-8)

9. 이스라엘(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한 곳은 어디입니까?(46:1)
10.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46:3-4)

11.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의 아들까지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46:26-27)
12. 애굽에 도착한 야곱 일행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46:28-34)

13.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47:7-9)

14.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일생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47:9)

15. 요셉이 그 아비와 그 형들에게 기업으로 준 좋은 땅은 고센지역의 어디입니까?(47:11)

16. 애굽 백성들이 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다 쓴 후에 요셉은 무엇으로 식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두가지를 쓰세요.(47:16-18,19,20)

17. 요셉이 애굽 (   )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습니다.(47:26)

18.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47:28)

19.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자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47:29-30)

20.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요셉에게 한 말 중 48:5을 써 보세요.

21. 야곱이 우수로는 (   )을 좌수로는 (   )를 축복하였습니다.(48:13-14)

22. 야곱이 요셉에게 한 신앙고백을 써 보세요.(48:21)

23. 장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9:4)

24. 형제 중 찬송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49:8-12)

25.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누구입니까?(49:22)

26.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   )가 되어 축복 받았습니다.(49:28)

27.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좇아 야곱을 장사한 곳은 어디입니까?(50:12-13)

28. 야곱이 죽은 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50:19-21)

29. 요셉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또 그의 유언은 무엇입니까?(50:25-26)

30.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써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 *제 50회 정답풀이입니다.　창세기 44장에서 50장까지입니다.*

1.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입니까?(44:1-2)

각인의 양식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양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은 각인의 자루에 넣고 자기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

2.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을 따라 미쳐 도둑의 누명을 씌웠을 때 형들이 말한 것 중 9절을 써 보세요.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3. 요셉의 잔이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까?(44:12) **베냐민**

4. 유다는 자기들의 죄악을 적발하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44:16) **하나님**

5.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는 요셉의 말에 베냐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누구입니까?(44:17-34) **유다**

6.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장은 몇 장입니까? **45장**

7.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무슨 말을 합니까?(45:5)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8. 요셉은 자기가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45:7-8)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9. 이스라엘(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예배한 곳은 어디입니까?(46:1) **브엘세바**

10.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46:3-4)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11.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의 아들까지 모두 몇 명이라고 합니까?(46:26-27) **칠십 명**

12. 애굽에 도착한 야곱 일행은 어디에 머물게 됩니까?(46:28-34) **고센**

13.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47:7-9) **130세**

14.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일생이 어떻다고 표현합니까?(47:9)
험악한 세월

15. 요셉이 그 아비와 그 형들에게 기업으로 준 좋은 땅은 고센지역의 어디입니까?(47:11) **라암세스**

16. 애굽 백성들이 식물을 구하기 위하여 돈을 다 쓴 후에 요셉은 무엇으로 식물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줍니까? 두가지를 쓰세요.(47:16-18,19,20) **짐승, 전지(토지)**

17.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었습니다.(47:26)

18. 야곱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47:28) **17년**

19.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워지자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47:29-30)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20. 야곱이 병들었을 때에 요셉에게 한 말 중 48:5을 써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것이 될 것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십이지파로 편입됩니다.

21. 야곱이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좌수로는 (**므낫세**)를 축복하였습니다.(48:13-14)

22. 야곱이 요셉에게 한 신앙고백을 써 보세요.(48:21)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3. 장자 르우벤에 대한 축복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9:4)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었기 때문에. 35:22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24. 형제 중 찬송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49:8-12) **유다**

25.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은 아들은 누구입니까?(49:22) **요셉**

26.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십이지파**)가 되어 축복 받았습니다.(49:28)

27.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좇아 야곱을 장사한 곳은 어디입니까?(50:12-13)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 창 23:16-18, 창 49:29-32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힌 곳

28. 야곱이 죽은 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50:19-21)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29. 요셉은 몇 살에 죽었습니까? 또 그의 유언은 무엇입니까?(50:25-26)

110세에 죽음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30.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나 은혜 받은 말씀을 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며 사랑하셨으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혈통을 통하여 에덴동산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의 열 두 아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한 씨들이 나라로 번성해 가는 모습 속에서 오늘 날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성장하여 더 많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져 번성하기를 기도합니다.

10. 2. 21. 51회

뉴욕 동부교회 *이름 ________________*

출애굽기

* 서론: 요셉의 사망으로 막을 내린 창세기 이후, 근 3세기가 흐른 시점에서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이야기이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진치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막을 지었다.

1. 저자: 모세

2. 기록 연대:B.C. 1446-1406 출애굽(B.C.1446)이후, 모세 사망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3. 기록 목적: ①애굽에서의 번성과 출애굽이 조상들과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②시내 산의 언약으로 신정 국가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을 보여 주기 위해 ③유월절 희생양 등을 통한 구속사의 예표적 사건들을 제시하기 위해

4. 주제: 피로 인한 구속.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노예 민족을 신정 국가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담보로 그들에게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새 생명을 주셨다.

5. 배경: 요셉에 의해 이루어진 애굽 이주 초기의 히브리 민족은 귀빈의 대우를 받았다.(창47:1-12) 그러나 왕조가 바뀌면서 영구적 노예화 정책의 희생물이 되었다.

6. 특징: ①구원의 책-선민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준다. ②예표의 책-유월절 양(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고전5:7), 만나(생명의 떡-요6:35), 반석의 생수(신령한 음료-고전 10:4) 등 본서에 나오는 주요 단어와 사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다.

****
*

♣ *출애굽기 1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1.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 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1:8-10)

①하나님의 백성이어서 ②요셉의 후예들이어서 ③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고 자기들 보다 더 강해서 ④그들이 지혜로워서

2.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1:14)

3.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줄이기 위해 애굽 왕이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1:15-16)

4.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자 애굽 왕이 다시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1:22)

5. '모세'의 뜻은 무엇입니까?(2:10)

6. 모세는 누가 젖 먹이며 키웠습니까?(2:7-10)

7.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간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2:11-15)

①히브리인은 왕자가 될 수 없어서 ②살인죄를 지은 것이 탄로 나서

③어머니를 만나려고 ④결혼하려고

8. 미디안에서 모세는 ( )와 결혼합니다.(2:21)

9. 2:24-25을 써 보세요.

10.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은 어디입니까?(3:1-4)

11. 호렙 산에서 모세가 본 광경은 무엇입니까?(3:2-3)

12.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3:5)

13.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3:7-12)

①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 ②애굽에 재앙을 내리는 일

③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여 애굽을 지배 하는 일 ④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일

14.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3:13-14)

15.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에게 시험적으로 보여 주신 이적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4:1-8)

①

②

16. 모세가 출애굽의 인도자가 될 것을 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4:10, 13)

17.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세의 형 (   )을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4:14-16)

18.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하십니까?(4:22)

19.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5:1,3)

20.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겠다는 요구에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5:3-18)

①짚은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되 벽돌의 수는 똑같이 만들어라. ②희생의 제물은 너희가 스스로 마련하여 가져가라

③남자들만 데리고 떠나라 ④거짓말하는 모세의 말에 반응하는 자는 사형할 것이다

21.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   )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6:3)

22.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기억하십니까?(6:4-5)

23.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6:6-8)

24.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6:9)

25.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무엇입니까?(6:20)

26. 아론의 네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6:23)

27.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각각 몇 살이었습니까?(7:7)

28.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의 첫 이적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7:8-12)

29. 첫 번 째 재앙은 무엇입니까?(14-20)

30. 애굽 (   )들도 자기 (   )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7:22)

*수고하셨습니다.....!!^^*

5. 성경통독 사경회 시간표

	1월17일 월	18일 화	19일 수	20일 목	21일 금	22일 토
6시30	일	어	납	니	다	
7:00-8:00	아	침		식	사	
8:00-8:30	영	감	의	제	창	
12:30	여는예배	페이지160 장(421,삼상9장)	860페이지 (시79편)	1331페이지(말4장)	317페이지(에베소6)	
	점	심	식	사		
1:30	영	감	의	제	창	닫는예배
2:00	180페이지(레위기 22장)	608페이지 (열왕25장)	1049페이지(사66장)	신약,186 페이지(요한21장)	423페이지(요계22장)	청소 정리정돈
6:30	저	녁	식	사		
7:30	영	감 의	제	창		
8:00	80페이지 -의무(260페이지, 민36장)	710페이지 (역대하36장)	1150페이지(애가5장)	262페이지 (롬16장)		집으로....
10:00	가정에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학교, 사회,직장을 위한 기도	vision	헌신의 기도	

*2009년 1월17일-22일까지, 장소: 동부교회 예배당

12. Bibliography

Arnold, Jeffrey. *Big Book on Small Groups*.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92.

Beckham, William A. *The Second Reformation*.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5.

Charles, M. Sell. *Family Ministry-The Enrichment of Family Life through the Church.* Michigan: Zondervan, 1981.

C. H, Gordon. *His Name is 'One'.* New York: Journal of Eastern Studiespids, 1970.

F. A, Rothschild. *The Shema.* New York: The Burning Bush Press, 1924.

Glenn E, Lndwing. *Bnidingan Effectire Youth Ministry.* Nashville: Abindon press, 1979.

Harold D, Miror Ced, O. *Creative procedures for Adult Groups.* Nashrille: Abingdor press, 1968.

Kreider, Larry. *House to House*. Houston: Touch Publications, 1995.

Malphurs, Aubrey.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ski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Malm M, and Jamison O, G. *Adolescence.* New York: Me Graw Hill Book Co, Inc. 2000.

Malphurs, Aubrey. *Pouring New Wine into Old Wine skins.* Grand Rapids: Baker Books, 1993.

Paul A, Kruger. *Oth i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I .* Grand Rapids: Eerdmans, 1997.

Bruce H. Wilkinson, and Kenneth Boa. 정인홍,곽칠호 역. *한눈에보는성경*.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0.

J. E, Adams. 전동식 역. *복음주의적 목회상담.* 서울: 성광문화사, 1983.

Lawrence O, Richards. 김원주 역. *어린이 사역*. 서울: 파라디온선교회, 1995.

Roy B, 주크. 천정웅 역. *교회 청소년 교육의 이론과실제.* 서울: 믿음의집, 1990.

Schreyer, G.M. 채위 역. *신학과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9.

G. R, Collins. 피현희, 이혜련역. *크리스챤 카운슬링*. 서울: 두란노서원, 1984.

Raymond, L. Crarner. 이창우 역. *예수 심리학.* 서울: 종로서적, 1981.

Ignore, Lepp. 제석봉 역. *현대인의 정신위생.*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81.

Erik, Erikson. 조대경 역. *아이덴티티*. 서울: 삼성출판사, 1977.

Estep, William R. 정수영 역. *재침례교도의 역사*. 서울: 요단출판사, 1986.

George, Carl. 김원주 역.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97.

Snyder, Howard A. 박이경. 김기찬 역. *21세기 교회의 전망*.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3.

게리 콜린스. 정동섭 역. *효과적인 상담*. 서울: 두란노 서원, 1997.

에드워드 푸르나이젠. 박근원 역. *목회학 원론*.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85.

로버트, 클락, 로이쥬크, 죠엔 브루베이커공편, 신청기역. *교회의아동교육*.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9.

단행본

강정훈. *중·고등부 지도자 핸드북.* 서울: 늘빛출판사, 1992.

강주태. *청소년 심리학*. 서울: 형성출판사, 1984.

강대식. *청소년문제의 구조적특성과 보호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지도 육성회, 1981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1998.

김성재. *청소년 갈등과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기독교 교육협회, 1980.

김재은. *현대 청소년의 생태적 환경과 심리,사회적특징.청소년범죄연구.* 서울:법무부, 1983.

김두용. *기독교 교육 심리학*. 서울: 복음문서연구회, 1973.

김재은. *청소년과 가정, 새시대의 청소년상*. 서울: 청소년대책 위원회, 1981.

김원일. *상담자로서 목회자의 기능과 한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원, 1988.

김태욱. *목회 상담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종교교육부, 1982.

김재한. *발달 심리학*. 서울: 학문사, 1983.

민영순. *발달 심리학*. 서울: 교육심리학, 1982.

박기성. *마스터성경 종합요약자료집*.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박종삼. *기독교 단체와 청소년 봉사*. 서울: 서울 YMCA, 1986.

반피득. *목회상담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78.

박희성. *중·고등 학생회 운영과 실재*. 서울: 성광문화사, 1978.

박아청. *청년과 아이텐티티*. 서울: 배영서적, 1988.

신진규. *교육원리.* 서울: 청록문화사, 1969.

송임섭.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1989.

왕대일. *21세기 설교가이드 제6권.* 서울: 성지연구사, 1997.

은준관. *교육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6.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이장호. *심리학.* 서울: 박명사, 1984.

유형심. *목회 심리학.*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출판부, 1974.

오성훈. *목회 상담 사례 분석.*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1987.

안재경. *비행청소년과 상담.* 서울: 기독교청소년선도회 출판부, 1983.

이종윤 편. *급변하는 사회와 교회갱신.* 서울: 요단출판사, 1996.

이정호, *기독교 교육 방법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4.

유 진. *사회환경과 청소년문제.* 풀빛목회 52호, 서울: 풀빛목회사, 1985.

연문희. *청소년 이해와지도.* 대전: 창학사, 1981.

정인석. *청년 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66.

정인식. *현대 청년 발달 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4.

장병림. *청년 심리학.* 서울: 법문사, 1980.

정태기. *한국교회와 청소년 프로그램.* 한국의 청소년상. 서울: YMCA, 1986.

정성구. *실천신학 개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0.

정일웅. *교육 목회학.* 서울: 솔로몬, 1993.

한완상. *한국 사회와 청년문화의 필요성.* 서울: 풀빛, 1984.

한국응용 심리학협회. *교육 심리학.* 서울: 세진문화사, 1973.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침례교회.*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1.

홍정기. 윤창규 편저, *청소년 교육.* 서울: 청소년교육선교회, 1990.

한미라. *기독교교육의목적으로서의구원* .월간목회 서울:월간목회사, 1986.

표갑수. *청소년의 가치관형성을위한 방안.* 청소년86년 여름호. 서울: 청소년지도 육성회, 1986.

최낙중.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바울 서신사, 1988.

연구논문

"가정교육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신앙과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 김대식.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家庭敎育에 대한 中學生의 態度研究" . 김연애. 이화여자대학교, 1978.

"가정교육회복을 위한 교회부모교육에 관한 이론 및 실제" . 임경화. 한일장신대학교, 1999.

"가정을 위한 교육 목회: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병복. 장로회신학대학교, 1989.

"가족 생활 주기에 따른 기독교 가정교육" . 이희정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敎會敎育的 側面에서 본 家庭敎育 프로그램 研究" . 裵孝均. 장로회신학대학신학대학원, 1994.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 교육을 위한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유치부 어린이를 중심으로" . 김순희. 총신대학교, 1999 .

“구약에 나타난 유태인의 가정교육 : 현대 기독교 가정의 교회성 회복을 위한 적용”. 김용호. 장로회신학대학, 1986.

“구약의 쉐마 연구”. 정계현. 서울신학대학교, 1997.

“구약의 쉐마에서 본 기독교 가정교육의 고찰”. 성수남. 서울신학대학, 1983.

“기독교가정 교육론:루터와부쉬넬의 사상을 중심으로”. 명현정. 영남신학대학교, 2001.

“기독교 가정교육 이해와 그 이론”. 이원순. 장로회신학대학, 1988.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조은영. 장로회신학대학교, 1997.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한 한 연구: 기독교 가정의 교회성 회복을 위한 가능성 모색”. 김상원. 장로회신학대학, 1985.

“기독교교육학에 기초한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조옥. 고신대학, 1983.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쉐마의 의의”.허영금. 침례신학대학, 1988.

“루터의 가정교육”. 안순옥. 장로회신학대학, 1980.

“사회변화속에서의 기독교 가정 교육에 관한 연구”. 김대식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쉐마 (신 6 :-9)에 대한 언약적 이해" . 이상권. 총신대학, 1984.

"쉐마를 통한 이스라엘의 종교교육" . 전천혜. 장로회신학대학교, 1980.

"아동기 자녀를 위한 기독교 가정교육에 관한 연구: 존 웨스터호프III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중심으로" . 유보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영락교회 교인의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가정 교육 연구" . 오을영 장로회신학대학교, 1999.

"유대인의 가정교육에 대한 연구" . 우종진. 영남신학대학교, 2001.

"이스라엘 가정교육과 한국 가정교육의 비교 연구: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정립을 위하여" . 김연미. 장로회신학대학, 1988.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 가정교육 연구: 호레이스 부쉬넬의 기독교 가정교육 이론에 기초하여" . 이성철. 장로회신학대학교, 2005

"청교도들을 통해 본 가정교육의 의미와 적용" . 정재익. 총신대학교 신학대학, 2000.

"청소년 이해에 따른 교회와 가정교육의 연계" . 이성훈.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한국의 유교적 가정교육과 성경적 가정교육의 비교 연구" . 임광수. 고신대학교, 2001.

"Gordon W. Allport의 인격이해와 기독교 가정교육" . 김복기. 장로회신학대학, 1980.

"Horace Bushnell사상에 나타난 가정교육론 연구" . 안은주. 장로회신학대학, 1992.

"M. Luther의 교육관에 나타난 가정교육 이해" . 한영복. 연세대학교, 1981.

"Pestalozzi의 가정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 황영희.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2002.

간행물

박영철. *"21세기와 복음주의 신학"* . 성경과 신학. 제22권(1997),총신대학교, 2001.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대뉴욕기념사업회 편. *대뉴욕 한인 100년사*. 서울 : 쿰란출판사, 2003.

사전및 주석

기독교 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교문사, 1980.

제자원.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신명기.* 서울: 성서교재주식회사, 1999.

장일선. *대한기독교서회 창립100주년 기념주석 신명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증언

강지훈장로의 증언(1935년생)-동부교회 창립교인중 한사람, 본 교회에 출석.

인터넷

-http://en.wikipedia.org .2009.1.10.

신 문

"아버지와 사이 나쁘면 자녀들 탈선" ,<문화일보>, 1999, 9.13

"아버지, 자녀간 대화 하루 1시간 이상 18%" , <경향신문> 1997. 5. 22.